



#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EF SET

EF 표준 영어 시험에  
무료로 응시하세요.

[www.efset.org](http://www.efset.org)

2018

[www.ef.com/epi](http://www.ef.com/epi)

##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

1.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30만 명의 시험 응시자
2. 13개국 새로 추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벨라루스,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온두라스, 레바논, 미얀마, 니카라과,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3. 산업군별, 직급별, 직업군별 점수 통계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의 영어 능력을 심층 분석
4. 새로운 상관관계 발견 :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가 더 개방적이고 평등한 경향을 보인다.
5. 400개 이상의 지역 및 도시의 영어 능력

## 목차

---

- 04 개요
- 06 EF EPI 2018 순위
- 08 EF EPI 2018 도시별 점수
- 10 EF EPI 세부 자료 및 수치
- 12 영어와 경제, 무역
- 14 영어와 혁신
- 16 직장에서의 영어
- 18 영어와 사회
- 20 영어와 기술
- 22 유럽
- 26 아시아
- 30 라틴 아메리카
- 34 아프리카
- 38 중동
- 42 결론
- 44 부록 A: EF EPI에 관하여
- 46 부록 B: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
- 47 부록 C: CEFR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 48 부록 D: EF EPI 국가 및 지역별 점수
- 50 부록 E: 인용 자료

# 개요

2018년에도 영어는 매우 중요한 언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등 모든 유형의 국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영어가 주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영어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영어가 글로벌 시대의 필수적인 의사소통 도구가 되면서 영어 구사 능력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반대로 영어 구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영어는 문화권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어 구사자 중 '원어만'은 4분의 1이 채 되지 않으며,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그 비율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영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EF 영어 능력지수 리포트 제8판은 2017년에 EF 영어 시험에 응시한 130만 명의 결과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반적으로 향상된 영어 능력

8개 국가가 2점 이상의 눈에 띄는 발전을 보였고, 지금까지 기록상 가장 많은 12개 국가가 가장 높은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러한 향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해외 여행은 7% 증가하였습니다.

##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가 더 개방적이고, 덜 권위적이며, 여성차별이 적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개선책으로서 영어를 들 수는 없지만, 분명 영향이 있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막힌 벽을 허물고, 국제적인 교류를 촉진하며, 각 개인들로 하여금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 영어와 혁신의 밀접한 관련

영어로 출판되는 과학 저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영어와 연구개발 투자 간 상관관계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국적의 직원을 채용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경쟁 기업보다 혁신을 통한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 가는 방식을 영어가 바꾸고 있습니다.

## 남성보다 유창한 여성의 영어 실력

이러한 결과는 8회에 걸친 EF EPI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좁혀졌던 성별 간 격차가 또다시 넓어졌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외국어 학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학습 동기가 더 높았고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해 훨씬 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훨씬 능동적으로 실수를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여성이 중등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여성의 영어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회의나 협상의 자리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발언 기회가 적고, 발언을 하더라도 많은 경우 저지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평균적으로 가장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20대 성인

최초로 전 세계 26~30세 성인이 21~25세 성인보다 영어 능력이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령대별 상대적인 능력은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직장인들이 영어 능력 향상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학생들보다 더 유창한 실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영어를 공교육 시스템에서 우선시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지역에서는 가장 어린 학생층이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연령별 차이가 미미한 지역들의 경우는 지난 수십 년간 영어 학습 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모두가 영어를 비슷한 수준으로 잘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부족했습니다.

## 임원이나 일반 직원에 비해 관리자급의 영어 능력이 더 우수

대부분의 산업군과 국가들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관리자급이 일반 직원보다 외국에 있는 동료나 고객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많다보니, 영어를 연습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또한 영어 구사 능력은 소위 고급 기술로 취급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관리자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반면, 임원급은 나이가 많은 편이고, 영어가 비교적 덜 강조되던 시절에 임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직급에 걸쳐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기업은 보다 국제적인 팀을 구성할 수 있고, 조직 내에서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 산업군 및 직군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어 능력

요즘 많은 인사담당자가 지원자들에게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만, 법률 및 전략 분야 같은 특정 직군이나, 금융 및 IT 같은 특정 산업군과 같이 특별히 높은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간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어떤 국가에서건 최고 능력 및 최저 능력 간 점수 차이는 15점 이상 또는 영어능력지수 3개 등급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세계화의 압박은 거의 모든 산업군이 국제적인 경쟁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영어 능력은 경쟁력을 갖추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 영어 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어 능력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월등히 상승하였으며, 알제리와 이집트, 나이지리아 또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인구 평균 연령이 어리고,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앞으로 영어 능력으로 국제 사회와 훨씬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영어 능력을 보인 유럽

유럽의 3대 경제 강국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는 계속해서 영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북유럽의 6개 국가가 영어 능력지수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스웨덴은 2년간 사라졌다 1위로 재등극하였고, 네덜란드는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유럽 대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럽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영어를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영어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아시아

이전 EF EPI 리포트에서 아시아 내의 최고 점수를 기록한 국가와 최저 점수를 기록한 국가의 점수 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2017년에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의 이미 탄탄한 영어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출발하여 전체 순위 중 3위를 차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은 별다른 변화 없이 모두 낮은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이 올해 새롭게 지수에 추가되면서 카자흐스탄과 함께 매우 낮은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어 능력이 소폭 하락한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영어 능력 수준이 가장 정체된 지역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한 베네수엘라와 최고 점수를 기록한 아르헨티나 사이에 점수 차가 겨우 1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열악하고 경제 불평등이 심하여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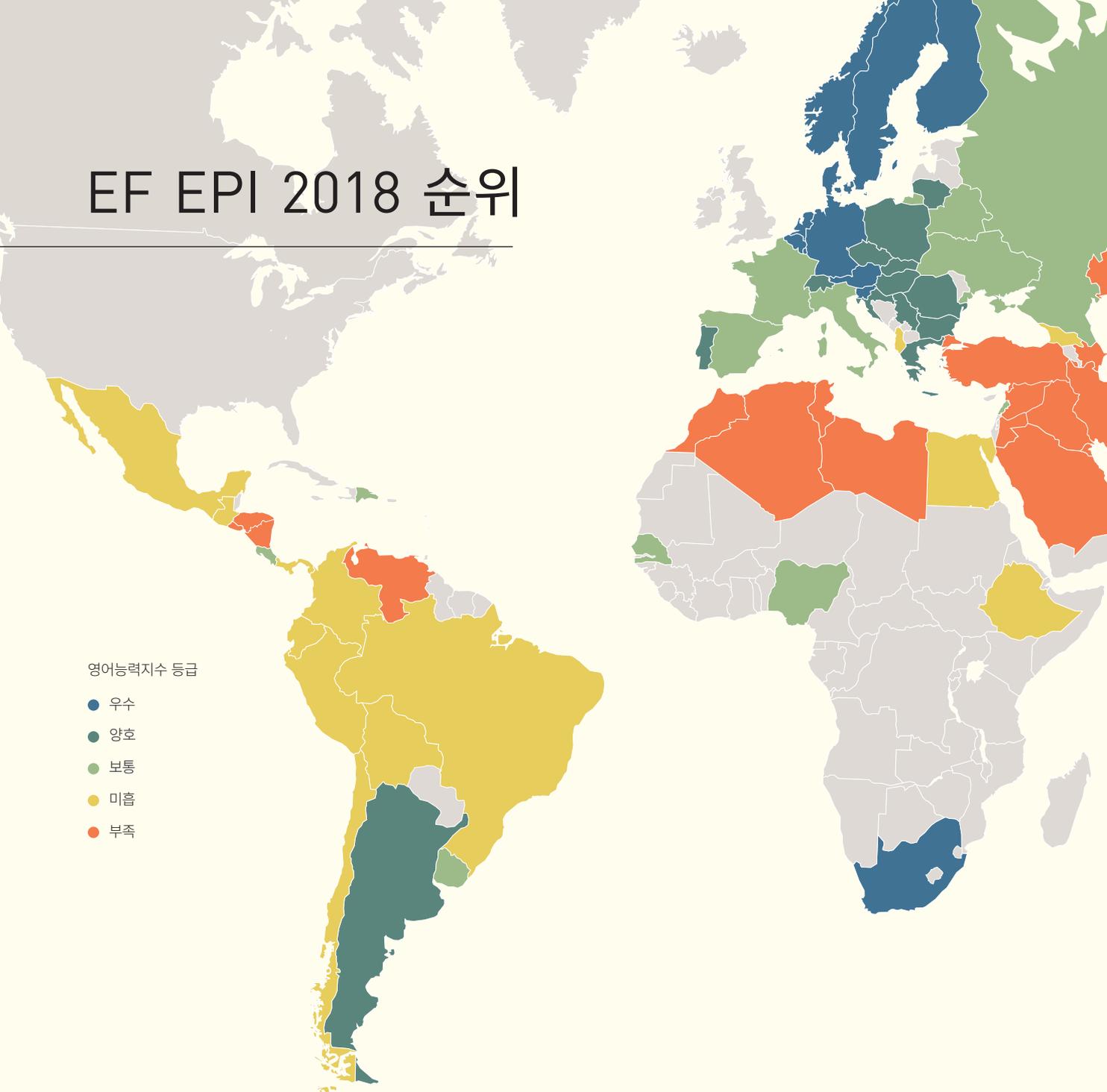
### 영어능력지수가 가장 낮고 불규칙한 중동 지역

이 지역 국가 대부분은 작년 대비 1점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지수에 추가된 레바논이 겨우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평균을 살짝 높였습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는 상당히 향상되었음에도 부족 등급에서 올라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 EF EPI 2018 순위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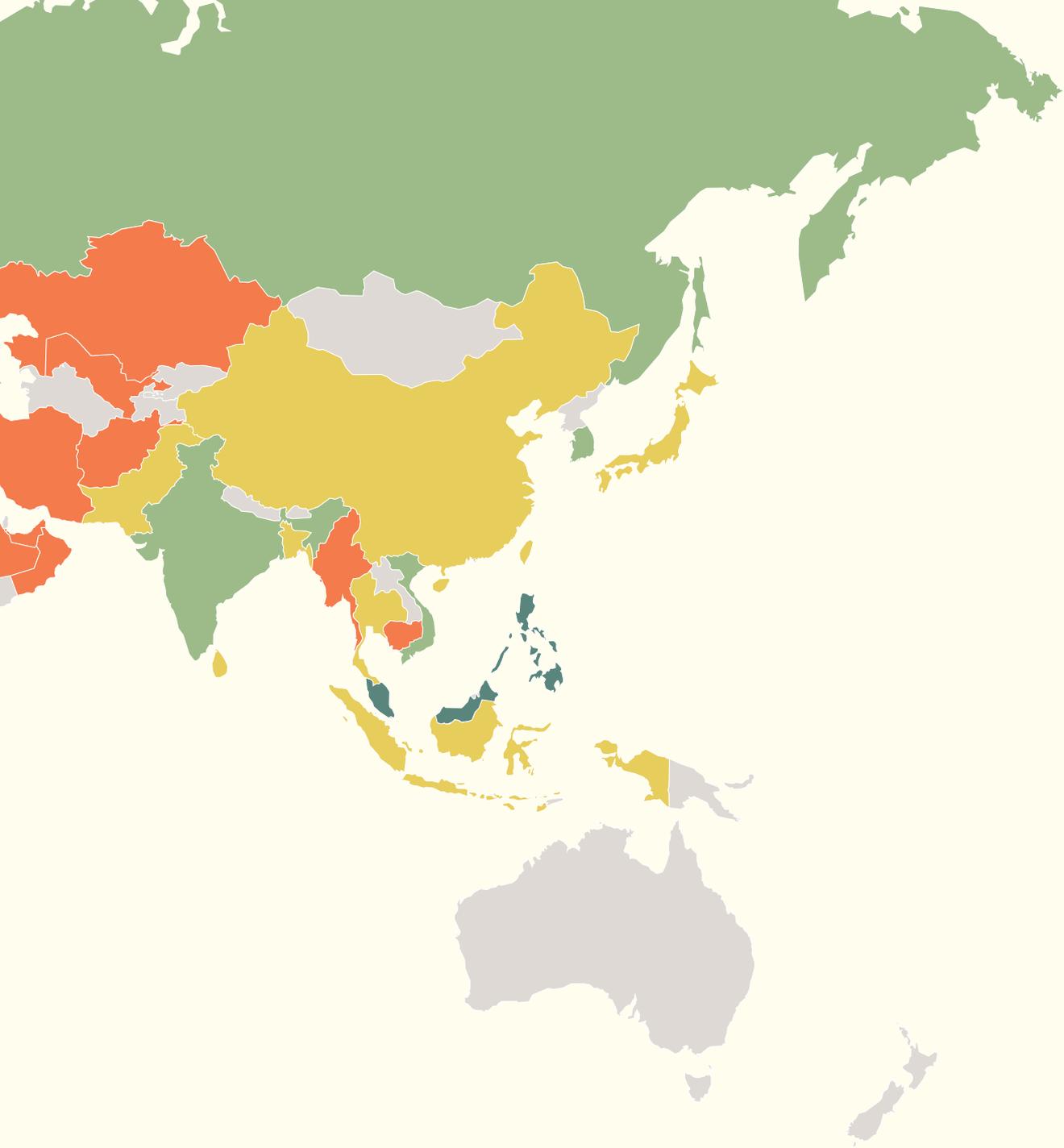
01	스웨덴	70.72
02	네덜란드	70.31
03	싱가포르	68.63
04	노르웨이	68.38
05	덴마크	67.34
06	남아프리카 공화국	66.52
07	룩셈부르크	66.33
08	핀란드	65.86
09	슬로베니아	64.84
10	독일	63.74
11	벨기에	63.52
12	오스트리아	63.13

## 양호

13	폴란드	62.45
14	필리핀	61.84
15	스위스	61.77
16	루마니아	60.31
17	크로아티아	60.16
18	세르비아	60.04
19	포르투갈	60.02
20	체코 공화국	59.99
21	헝가리	59.51
22	말레이시아	59.32
23	그리스	58.49
24	슬로바키아	58.11
25	불가리아	57.95
26	리투아니아	57.81
27	아르헨티나	57.58

## 보통

28	인도	57.13
29	나이지리아	56.72
30	홍콩 특별 행정구	56.38
31	대한민국	56.27
32	스페인	55.85
33	레바논	55.79
34	이탈리아	55.77
35	프랑스	55.49
36	코스타리카	55.01
37	도미니카 공화국	54.97
38	벨라루스	53.53
39	세네갈	53.50
40	우루과이	53.41
41	베트남	53.12
42	러시아	52.96
43	우크라이나	52.86
44	마카오 특별 행정구	52.57



**미흡**

45	조지아	52.28
46	칠레	52.01
47	중국	51.94
48	대만	51.88
49	일본	51.80
50	파키스탄	51.66
51	인도네시아	51.58
52	알바니아	51.49
53	브라질	50.93
54	에티오피아	50.79
55	과테말라	50.63

56	파나마	49.98
57	멕시코	49.76
58	스리랑카	49.39
59	페루	49.32
60	콜롬비아	48.90
61	볼리비아	48.87
62	이집트	48.76
63	방글라데시	48.72
64	태국	48.54
65	에콰도르	48.52

**부족**

66	이란	48.29
67	모로코	48.10
68	튀니지	47.85
69	온두라스	47.80
70	엘살바도르	47.42
71	아랍에미리트	47.27
72	니카라과	47.26
73	터키	47.17
74	요르단	47.10
75	베네수엘라	46.61
76	시리아	46.37
77	아제르바이잔	45.85

78	쿠웨이트	45.64
79	오만	45.56
80	카자흐스탄	45.19
81	알제리	44.50
82	미얀마	44.23
83	사우디아라비아	43.65
84	아프가니스탄	43.64
85	캄보디아	42.86
86	우즈베키스탄	42.53
87	이라크	40.82
88	리비아	39.64

# EF EPI 2018 도시별 점수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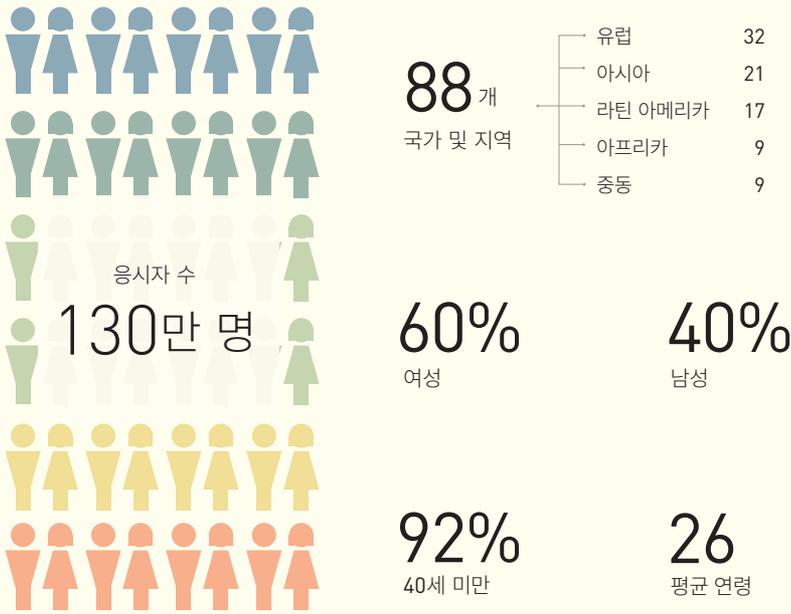
암스테르담	72.41	서울	58.72	튀니스	53.17
스톡홀름	71.85	부에노스아이레스	58.43	리우데자네이루	53.16
뉴델리	69.96	마드리드	58.42	멕시코시티	53.11
요하네스버그	69.42	상해	57.91	부쿠레슈티	52.54
오슬로	69.17	파리	57.49	몬테레이	52.37
헬싱키	68.45	민스크	57.06	카이로	52.30
뭄바이	68.28	키예프	57.01	키토	51.91
마닐라	65.21	테헤란	55.97	양카라	51.73
비엔나	65.14	하노이	55.82	광저우	51.38
프라하	65.10	모스크바	55.59	보고타	51.25
부다페스트	64.94	로마	55.33	리마	51.05
쿠알라룸푸르	64.72	도쿄	55.13	방콕	50.93
브뤼셀	64.53	카라치	55.08	카잔	50.62
바르샤바	64.42	두바이	55.06	카사블랑카	50.52
취리히	64.42	베이징	54.80	아스타나	49.78
베를린	64.24	브라질리아	54.64	카라카스	48.47
리스본	61.86	자카르타	54.26	알제	48.31
소피아	60.79	상파울로	54.02	바그다드	47.43
라고스	60.29	산티아고	53.57	리아드	43.87
아테네	60.19	상트페테르부르크	53.34		



400개 이상 지역 및 도시의 영어 능력 점수와 국가별 성별, 연령별, 업종별 데이터를 [www.ef.com/epi](http://www.ef.com/epi)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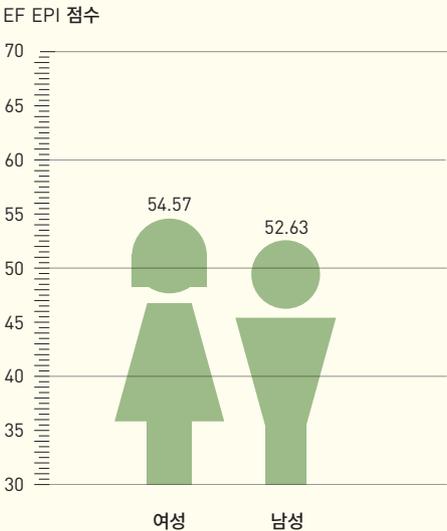
# EF EPI 세부 자료 및 수치

시험 응시자에 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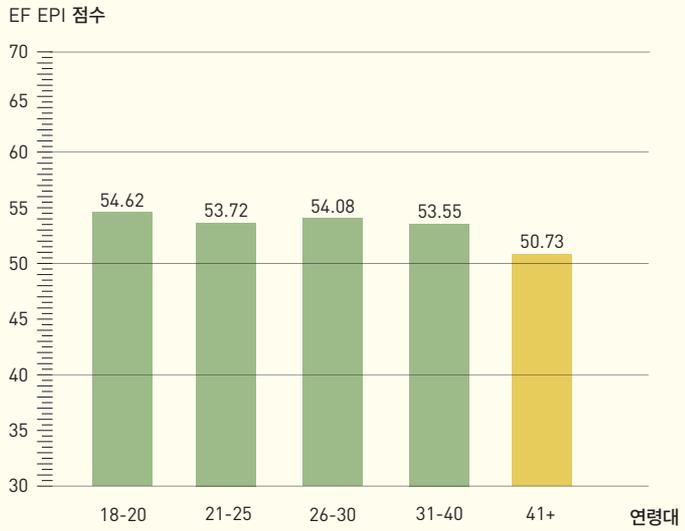


성별과 나이가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성별 차이



글로벌 세대별 차이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올해 EF EPI의 핵심 내용:

### EF EPI와 인구 규모

국가의 인구 규모는 영어 능력 수준과는 대체로 무관하고, 다양한 규모의 국가들에서 우수 등급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매우 적은 국가는 평균 이상의 영어 능력을 나타내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큰 이웃 국가들보다 국제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더 긴급한 경제적 필요가 있습니다.

1천만 명 미만 30개국		1~5천만 명 32개국		5천만 명 이상 23개국	
<b>평균</b>	56.20	<b>평균</b>	51.13	<b>평균</b>	53.59
<b>최고 점수</b>		<b>최고 점수</b>		<b>최고 점수</b>	
스웨덴	70.72  9.9M	네덜란드	70.31  17.1M	남아프리카 공화국	66.52  54.8M
싱가포르	68.63  5.9M	벨기에	63.52  11.5M	독일	63.74  80.6M
노르웨이	68.38  5.3M	폴란드	62.45  38.5M	필리핀	61.84  104.3M

인구 규모 (단위: 백만 명)

### EF EPI 2018 지역별 동향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b>최고 점수</b>	스웨덴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레바논
<b>최저 점수</b>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베네수엘라	이라크
<b>최대 상승</b>	+2.12 체코 공화국	+2.60 싱가포르	+3.15 남아프리카 공화국	+1.88 코스타리카	+2.70 이라크
<b>최대 하락</b>	-2.59 덴마크	-2.24 방글라데시	-1.16 튀니지	-1.81 멕시코	-2.12 시리아

### EF EPI 지역 평균

EF EPI 점수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영어와 경제, 무역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의 국제 무역 의존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은 1995년에 전 세계 GDP의 44%를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56%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국제 거래에는 공용어 사용이 요구되고, 이때 통용되는 언어는 대부분 영어입니다. 영어 능력과 여러 가지 수출입 지표 사이에는 강한 상관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물류 성과(도표 A), 수출 서류 및 수입 시기 등이 포함됩니다.

##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EF EPI 리포트에서 사업 용이성과 영어 능력(도표 B) 사이의 상관 관계는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혹은 지역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가에게는 영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글로벌 공급업체, 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또는 전 세계의 유사 기업들과 경쟁하며 점점 사업 영역을 해외로 확장하는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Harvard Business School의 Tsedal Neeley 교수에

따르면, 모든 다국적 조직의 60% 정도가 이미 영어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언어가 영어가 아닌 기업은 선도 기업을 따라가기 힘들 것입니다.

## 공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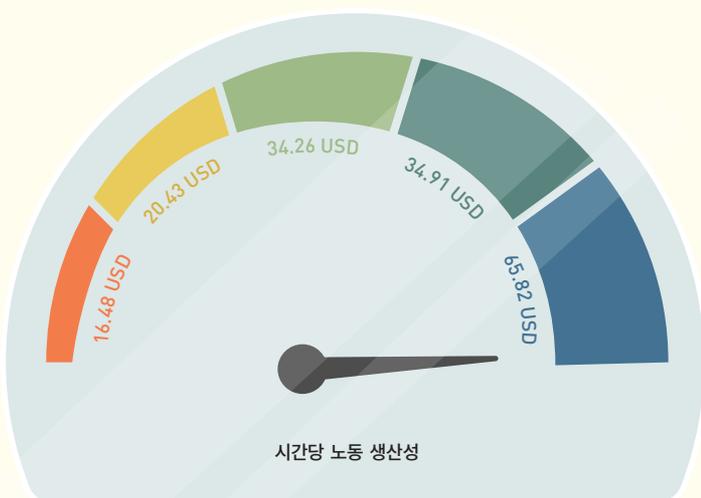
탄탄한 영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점점 더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라쿠텐(Rakuten)은 2010년, 전 세계 지사의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쿄 본사에서 근무하는 새로운 엔지니어의 80%가 일본인이 아니며,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면서 2억 명이었던 사용자 수가 11억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비영어권 국가에 본사를 둔 Honda와 Nissan, Renault, Siemens, Nestle, Sodexo 및 기타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 또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노동력을 통합하려면 공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영어와 경제 발전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서는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확연한 혜택이 따릅니다. 영어 능력은 국내 총생산 및 1인당 국민 총소득(도표 C)를 비롯한 여러 주요 경제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지식 기반의 경제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어 능력과 서비스 수출(도표 D), 그리고 생산성 간에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곳에서 소매업은 최대의 단일 자영업임에도,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20%의 비율로 전자상거래가 성장하고 있어서, 철저히 현지 사업 영역인 소매업 분야마저도 현지 사업으로 존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래의 노동 시장은 국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인 기본 능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높은 업무 효율성

시간당 업무량을 측정할 결과, 영어 능력과 생산성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출처: Cato Institute's Human Progress Project, 2017

도표 A  
영어와 물류

물류 성과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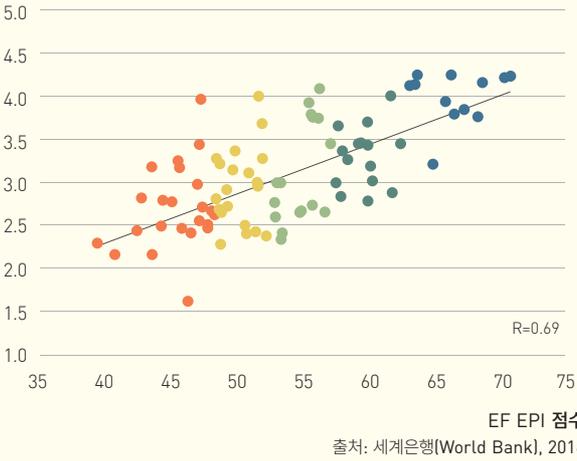


도표 B  
영어와 비즈니스

비즈니스 용이성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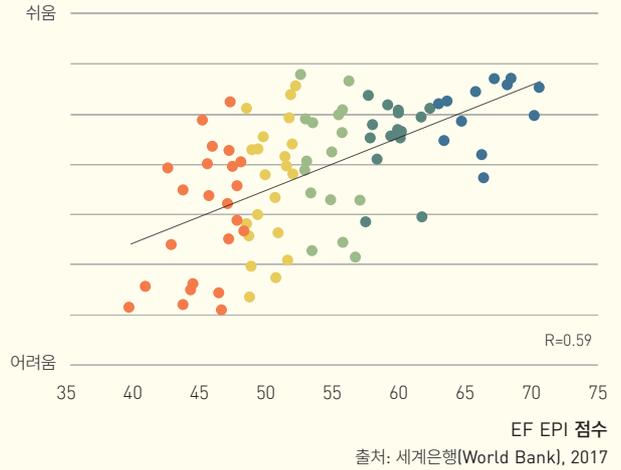


도표 C  
영어와 소득

평균 총소득(단위 USD, 2016년 환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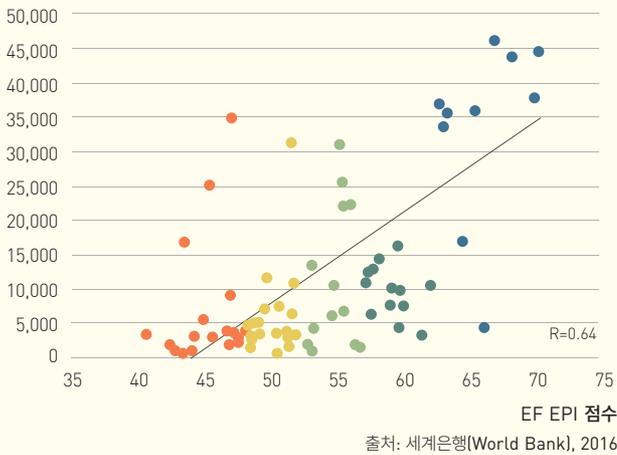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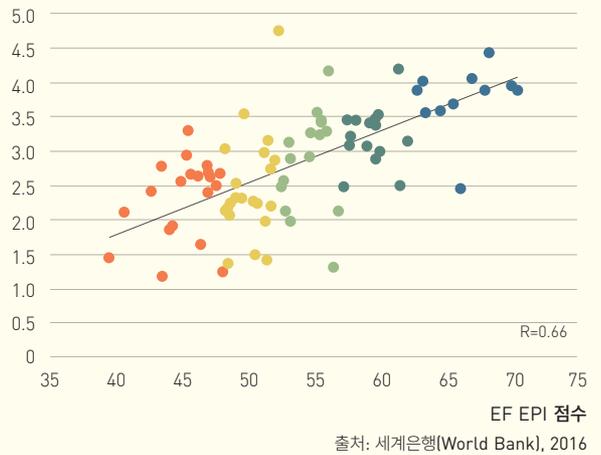


도표 D  
영어와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출(BoP, 1인당, 현재 USD, 로그 척도)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영어와 혁신

좋은 아이디어는 아랍어나 스와힐리어, 영어 또는 어떤 언어로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어로 공유되지 않으면 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학술 잡지부터 TED Talks에 이르기 까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단지 언어적 장벽을 이유로 글로벌 혁신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비단 학계나 기술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 국제적인 좋은 사례를 접하는 것은 큰 이득이 됩니다. 회계사에서 CEO에 이르기 까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세계적 차원의 지식을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 공유

EPI 조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한 국가의 영어 능력지수는 자본과 인적 자원에 대한 R&D 투자 규모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도표 E, F).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 세계의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새로운 발견들을 확인하기 위해 영어를 필요로 합니다. SCImago Journal

Rank가 심사하는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과학 저널 모두가 기사를 영어로 게재 하고 있으며, 국가의 영어능력지수와 인구 100만 명당 과학 및 기술 저널 기사 수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도표 G). 또한, 영어로 게재한 과학자들의 논문이 다른 언어로 게재된 논문보다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이디어는 공유해야 더욱 활성화되고, 글로벌 과학 커뮤니티에 통합되면서 더 빠른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협업과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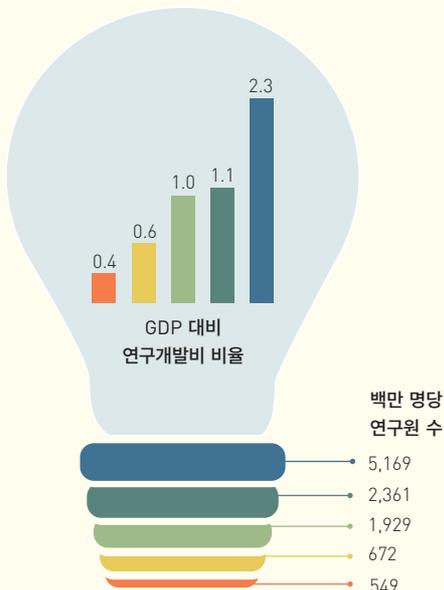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장거리 여행이 용이해 지면서 국제적 협업이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환경의 다양성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입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BCG가 지난 2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경영진의 다양성이 평균 이하인 회사는 최근 출시한 제품 및 서비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경쟁사의 수익보다 19% 정도 낮았습니다. 혁신 강화 측면에서 모든 유형의 다양성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출신 국가의 다양성이

성별, 연령, 교육적 배경, 진로의 다양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촉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국제적으로 구성된 팀은 영어로 일하므로 혁신을 위한 잠재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숙련된 인재를 영입하고 성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과 사례를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능력과 국제 인재경쟁력지수(GTCI: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도표 H). 영어 능력은 현지 인재가 글로벌한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해외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2017 HSBC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모바일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인재들의 출신 국가 상위 5개국으로 싱가포르와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가 선정되었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영어능력지수 최상위 국가였습니다(5위는 뉴질랜드였음). 해외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지 인재를 육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 합니다.

## 번득이는 아이디어

영어 능력은 연구개발비, 1인당 연구원 및 기술자 숫자 등 혁신의 몇 가지 주요 척도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 영어능력지수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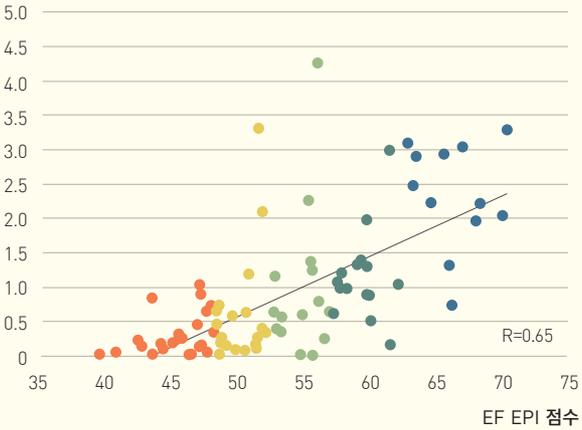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15

도표 E

### 영어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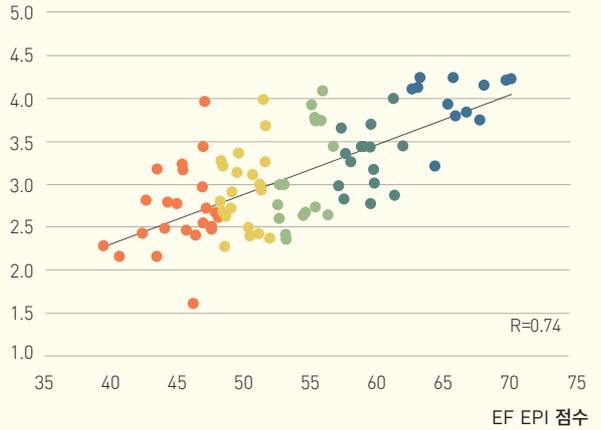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15

도표 F

### 영어와 연구

R&D 연구원 수(백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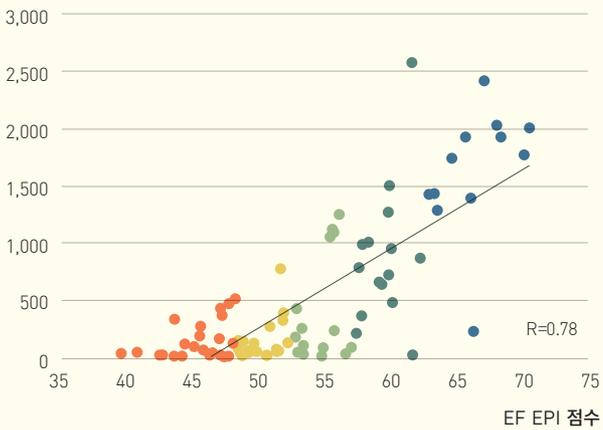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15

도표 G

### 영어와 학문

과학 및 기술 저널 기사(백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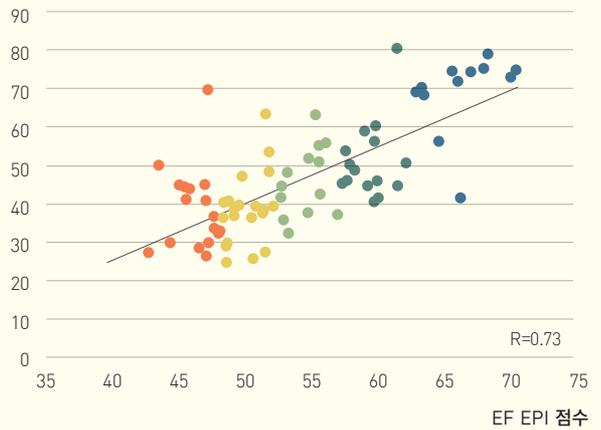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16

도표 H

### 영어와 인재

국제인재경쟁력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출처: INSEAD, 2018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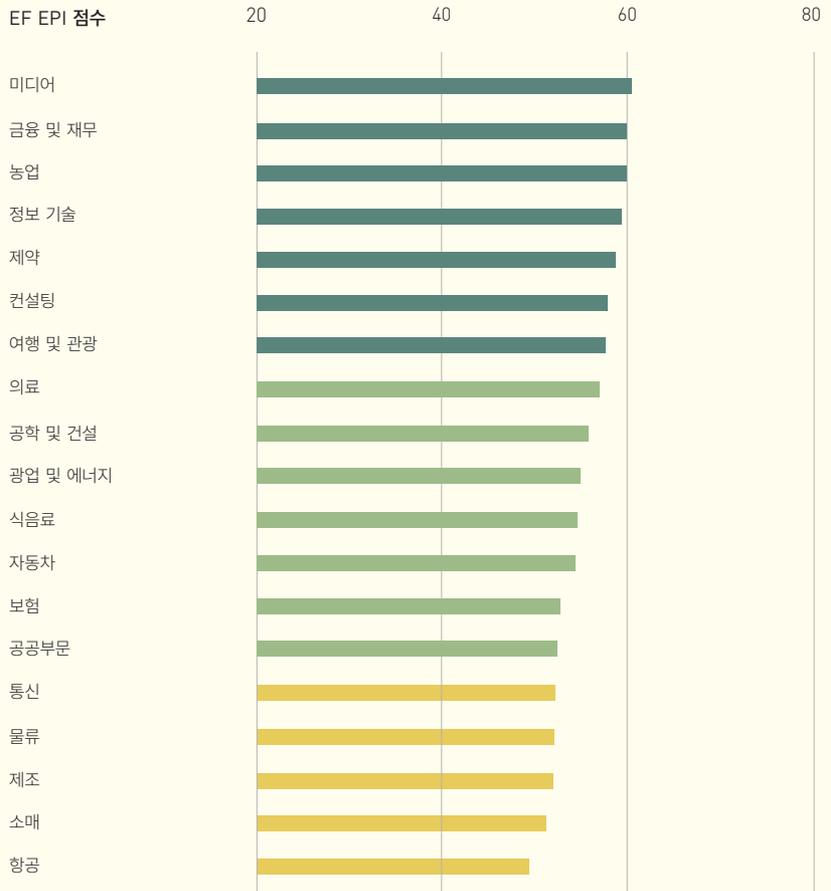
##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영어

영어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업들과 직업군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때 영어는 특정 직군의 특정 직업에서만 요구되는 능력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국경을 넘어서 공급망, 기술 지원, 고객과의 소통, 문서, 관리 체계 등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수는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25%가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영어권 국가 28개국 소속 기업의 70% 이상이 사업에 있어 영어가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11%는 영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영어 능력 차이 감소 경향

당사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경향의 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업 분야별 영어 능력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분야별 영어능력 지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2016년에 19점이었으며 현재는 10점 정도입니다. 이처럼 능력의 격차가 감소된 것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군의 영어능력지수가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많은 기업들이 영어 교육에 투자를 하고, 각자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투자를 하는 성인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산업군별 EF E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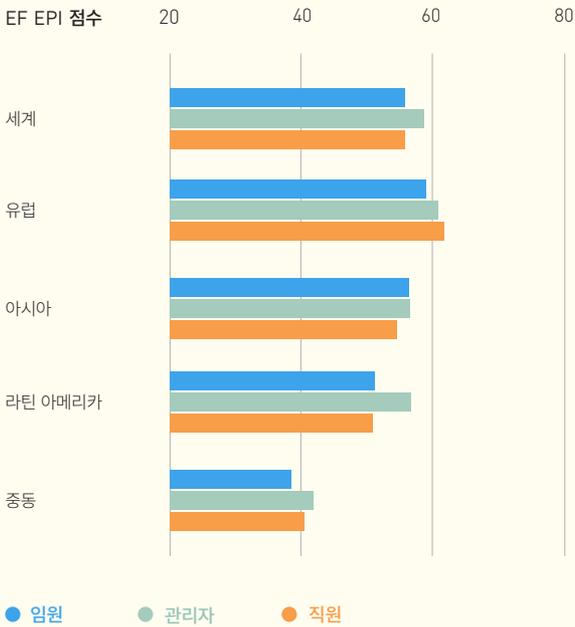
### 영어 능력이 뛰어난 관리자

전 세계적으로 관리자 직급이 임원이나 일반 직원보다 영어를 더 잘 구사합니다. 특히, 평균 연령이 젊은 층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이 지역은 최근 학교 영어 교육 향상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에도 성인 평균 영어능력지수가 지난해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우, 인구 통계상 연령대가 높고 근로자 직급 간 영어 능력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는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영어를 공부하여 관리자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유럽에서는 중간급 직원들이 영어를 가장 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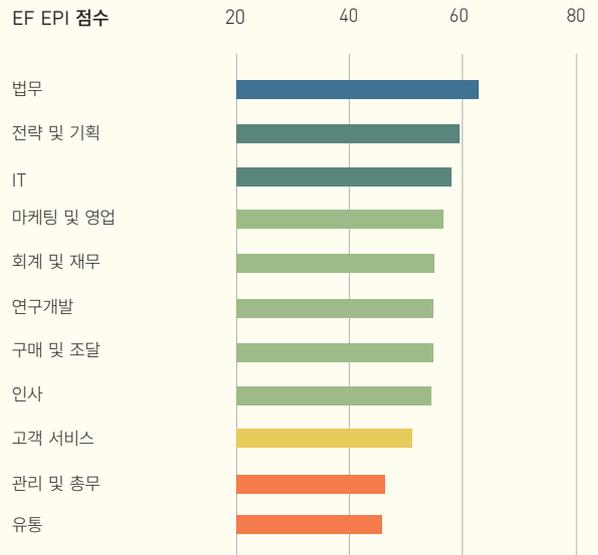
### 직무별 차이

모든 비즈니스 환경 관련 지표 중 영어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직무별 지표입니다. 직무에 따른 영어 수준은 매우 높음에서 매우 낮음까지 5개 영어능력지수 등급 모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또는 과거의 고용 관행에 따른 채용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큼니다. 통합적 인재풀을 개발 및 배치하는 대신 국제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영어 구사 가능 직원과 활동이 해당 지역에 한정된 영어 비구사 직원을 둘 다 채용하는 방식은 기업에게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직급별 EF EPI



## 직무별 EF EPI



# 영어와 사회

성인의 영어 능력은 사회의 개방성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측정 지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인들이 영어를 학습해온 사회는 전체적으로 좀 더 국제적인 움직임이 많고, 성역할에 대해 진보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영어능력지수가 낮은 국가들의 성인들은 좀 더 보수적이고, 편협한 경향이 있으며, 권력이나 소득 불평등을 감수하는 편입니다. 이것에 명백한 원인-결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의사 소통을 위한 글로벌한 수단인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원동력이 사회의 개방성을 늘리고, 불평등을 줄이는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권력과 영어 능력 간의 관계

성인 영어능력지수는 Hofstede의 권력간격 지수(PDI: Power Distance Index)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수는 조직 내의 하급자 집단이 권력의 불평등을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도표 I). 이 지수는 직장과 가족 단위 모두에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나타냅니다. PDI 점수가 높을수록 전형적으로 권위적인 서열 시스템을 갖추어 그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이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불평등 수준이 높고 영어능력지수가

낮습니다. 이와 완전히 반대인 사회에서는 평등한 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번창하고, 불평등에 대한 관용은 낮고, 구성원의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이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영어능력지수는 높은 편입니다.

영어가 위계질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넓히는 데에 공헌할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 비영어권 인구 10억 명 중 대다수의 목표는 국경을 초월한 소통입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올해 EF EPI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수 중 하나는 Economist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입니다. 바깥세상과 접촉하게 되면 당연히 자국의 사회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많은 경우 변화하게 됩니다.

## 여권 신장

성역할에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성인들의 영어 실력이 더 뛰어납니다. 영어능력지수와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 간, 그리고 영어능력 지수와 초등 교육기관에 등록한 여자아이들의

비율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도표 J와 K). 모든 EF EPI에서 지역이나 경제력, 전반적인 영어 능력과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21세기형 숙련된 인재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저 여성 고용률을 보인 국가의 경우,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많은 혜택이 따를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성별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는 경제 참여도와 교육적 성과, 정치적 영향력, 건강에 있어 남성 대비 여성의 대우가 어떠한지를 측정합니다. EF EPI는 이 지수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도표 L). 물론 이들이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한다는 것 자체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는 좀 더 부유하고 개방적이며 국제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곳의 사람들이 가장 영어에 능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 삶의 질

인간 개발 지수(HDI)는 국가별로 평균 수명, 교육, 1인당 국민 소득에 기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평가합니다. 각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의 HDI 평균 점수에서 보듯이, 영어와 삶의 질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HDI) 점수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

영어능력지수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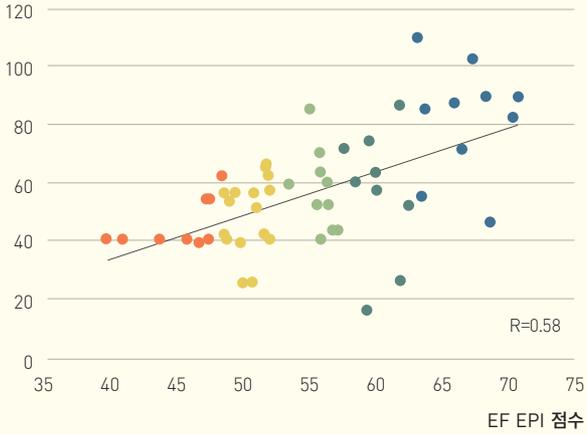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출처: UN 인간 개발 보고서, 2016

도표 I

### 영어와 권력간격

권력간격지수(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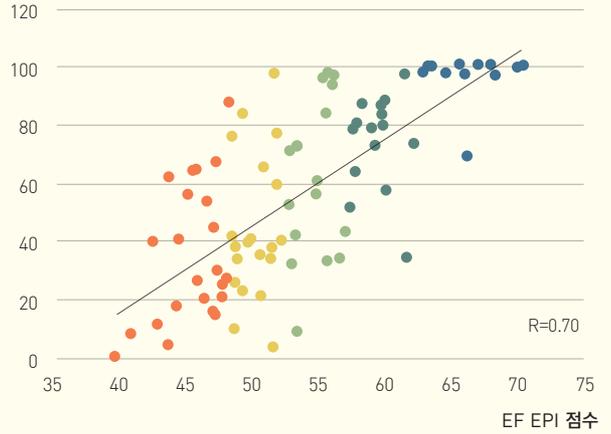


출처: Hofstede Insights, 2010

도표 J

### 영어와 은행 계좌 보유 여성

금융기관 계좌, 여성(% 1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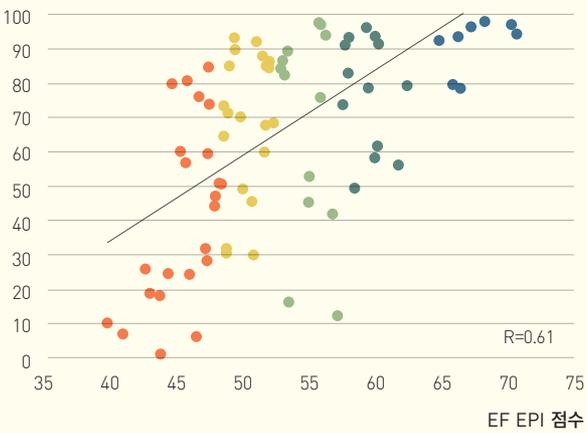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16

도표 K

### 영어와 유치원 진학 여아 수

학교 등록, 유치원, 여성(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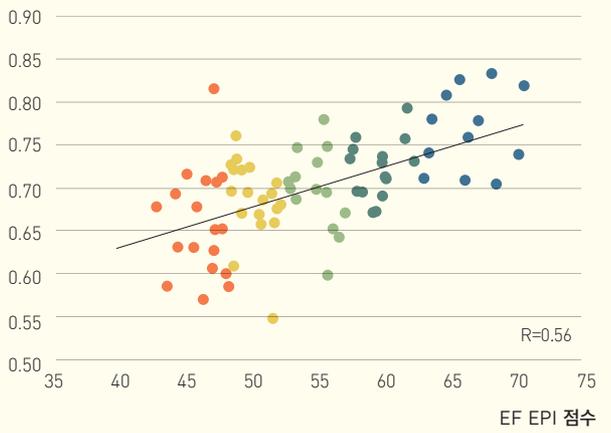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16

도표 L

### 영어와 성평등

글로벌 성별차 지수



출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7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영어와 기술

영어 능력과 인터넷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의 더 많은 지식들을 접하고, 글로벌 협업 대상을 찾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인터넷에서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한 웹사이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의 최첨단 연구와 혁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언어적 통일이 필요합니다. 기술 활용 능력 또한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영어에 더욱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영어가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글로벌한 노출을 통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대역 사용과 안정적인 서버 수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보급률이 높을 수록 영어 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도표 M과 N).

## 지식을 공유하는 세상

세계의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중 대다수는 미국 기업이며,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이 영어 어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IT 문서와 기술 연구자료도 다른 언어보다 영어로 출판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결과 영어 능력이 부족한 기술 근로자는 해당 분야의 중요한 자료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최신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IT 인프라 및 전자 상거래 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전문가 인력이 형성되기 어려워집니다.

## 기술과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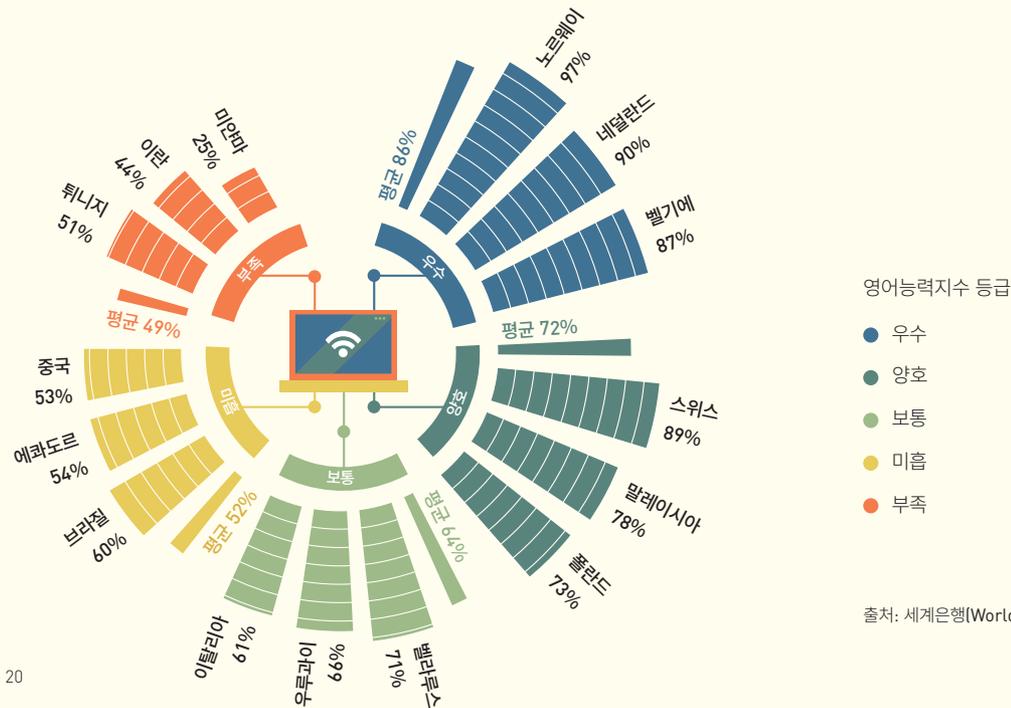
기술은 기존의 무역 구조를 강화할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거래를 만들어 냅니다. WTO에 따르면, 통신과 컴퓨터, 정보 서비스의 수출 규모가 2016년에 1,42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에 유럽은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 하면서 관련 서비스 최대 수출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ICT 서비스 분야는 기술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며(도표 P), 그 수출 규모는 영어 능력과 깊은 상관성이 있습니다(도표 O). 이 분야로의 확장을 꾀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은 물론, 해외 고객들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온라인 영어 학습

영어 습득에 있어 기술은 이미 가장 강력한 학습 촉진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별 학습자들은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영어 학습 자료를 광범위하게 접하고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교육법에서 벗어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기술을 활용하면 자체적인 영어 학습보다 높은 품질의 영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빠른 모바일 접속이 가능해지고, 공공 및 개인 차원 모두에서 온라인 영어 학습이 가능하게 되면, 성인들은 자신의 학습법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고, 공식 교육과정 밖에서도 영어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타 신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더 실감 나는 디지털 교육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온라인 코스가 낮은 채택률과 높은 해지율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영어 교육이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공급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력적인 학습 전략과 실시간 온라인 교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가상 세계, 실제 기술

영어능력지수가 높은 국가의 평균 인터넷 보급률(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어 능력이 있으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그 결과 영어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16

도표 M

### 영어와 광대역 접속

고정 광대역 구독(100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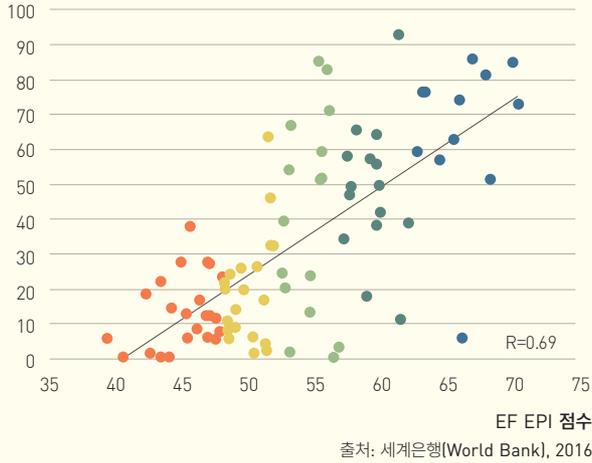


도표 N

### 영어와 인터넷 보안

안전한 인터넷 서버(백만 명당, 로그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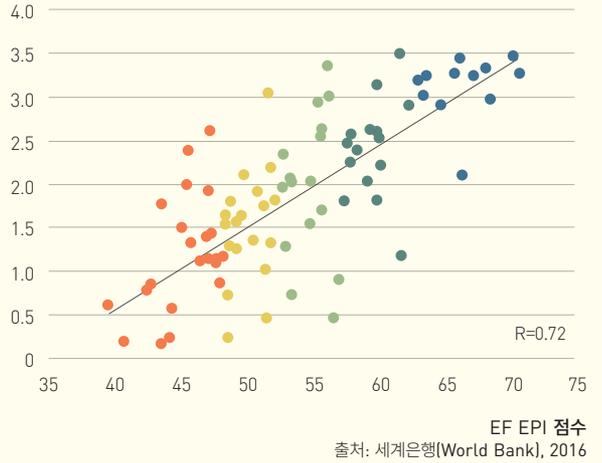


도표 O

### 영어와 ICT 서비스 수출

ICT 서비스 수출(BoP, 현재 USD, 로그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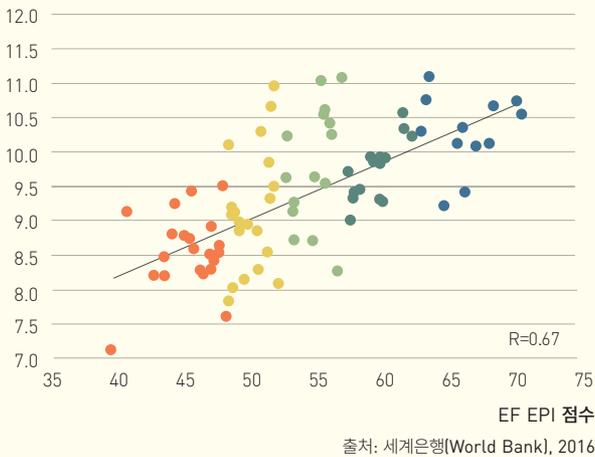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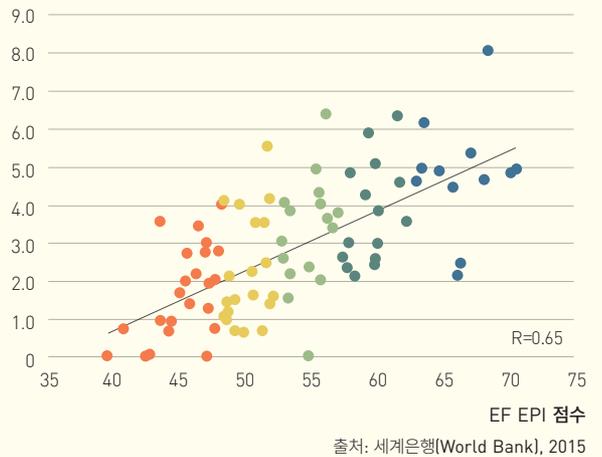


도표 P

### 영어와 IT 제조

중소기업 및 최첨단 산업(% 제조 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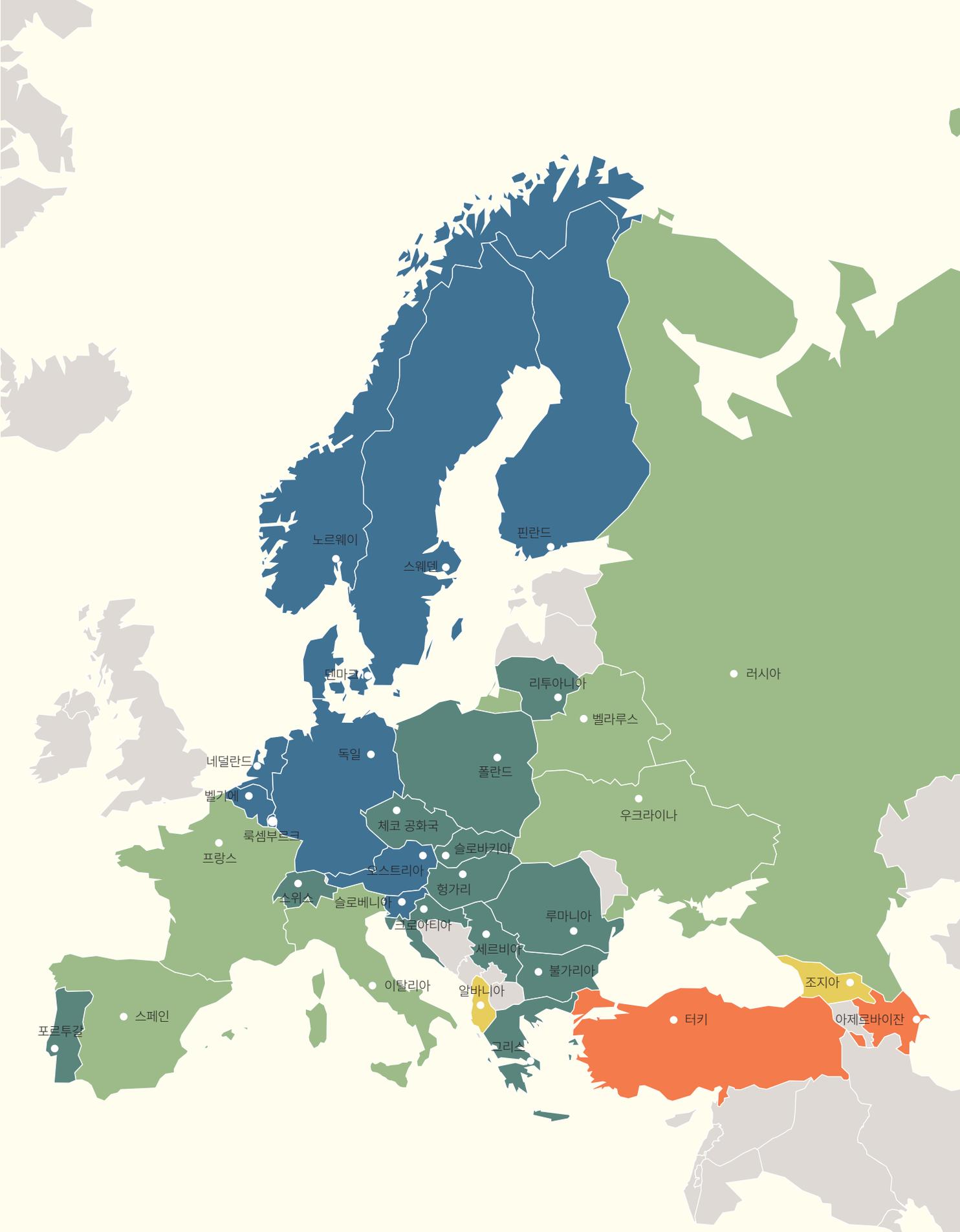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유럽

## EF EPI 순위

01	스웨덴	70.72	15	스위스	61.77	32	스페인	55.85
02	네덜란드	70.31	16	루마니아	60.31	34	이탈리아	55.77
04	노르웨이	68.38	17	크로아티아	60.16	35	프랑스	55.49
05	덴마크	67.34	18	세르비아	60.04	38	벨라루스	53.53
07	룩셈부르크	66.33	19	포르투갈	60.02	42	러시아	52.96
08	핀란드	65.86	20	체코 공화국	59.99	43	우크라이나	52.86
09	슬로베니아	64.84	21	헝가리	59.51	45	조지아	52.28
10	독일	63.74	23	그리스	58.49	52	알바니아	51.49
11	벨기에	63.52	24	슬로바키아	58.11	73	터키	47.17
12	오스트리아	63.13	25	불가리아	57.95	77	아제르바이잔	45.85
13	폴란드	62.45	26	리투아니아	57.81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리투아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벨기에

체코 공화국

우크라이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조지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알바니아

그리스

터키

아제르바이잔

#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영향?

유럽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어능력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년도 기준치 자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평균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영어능력지수가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기록한 27개국 중 22개 국가가 유럽 지역에 속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수십 년에 걸친 효과적인 정책들 덕분입니다. EF는 세계 최대의 학생 모빌리티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Erasmus+)를 운영하여 매년 유럽의 70만 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들이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 학생의 83%가 10세 이전에 이미 최소한 외국어 1개를 학습하기 시작하며, 13세 학생의 97%가 영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대전을 겪어낸 현대 유럽은 다중언어 사용과 국제 협력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영어로 앞서 가는 유럽

스웨덴은 지난 5년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1인당 난민 수용 인원이 더 많았음에도 2년 후에 다시 1위 자리를 석권했습니다. 스웨덴은 또한 인적 자원과 투자, 지적 재산 등을 비롯하여 27개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혁신 순위 (European Commission's Innovation Scoreboard)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탄탄한 교육 시스템 덕분에 눈에 띄게 영어 수준이 높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미디어와 안정적으로 자리잡힌 국제주의 문화를 통해 매일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 유럽은 영어 능력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로 점점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 허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영국 및 아일랜드로 이민가는 중앙 유럽의 젊은 층 비율이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했고, 떠났던 사람들 대다수도 영어 능력을 습득하고 귀국했습니다. 체코 공화국과 헝가리,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6%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는 2004년 이래 구매력평가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에서 1인당 GDP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영어는 글로벌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인 국가도

이탈리아와 프랑스 모두 작년부터 성인 영어 능력지수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지역 내 순위가 변동될 수준은 아닙니다. 이 두 국가는 다른 주요 유럽 경제국에 비해 저조한 영어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어 보존을 위해 2018년 법원 결정에 따라서 대학에서 영어만으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어 능력 격차를 줄이고자 지속적인 교육 투자 체계와 중등교육 시험제도 등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어 보존이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를 위협한다는 인식은 항상 영어 능력지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단일 시장 밖의 유럽 국가들은 이웃 국가들에 비해 영어능력지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의 평균 점수는 유럽 공동 시장 국가들보다 10점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가 유럽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데에 언어가 유일한 장애물은 아니지만, 소통의 장벽이 그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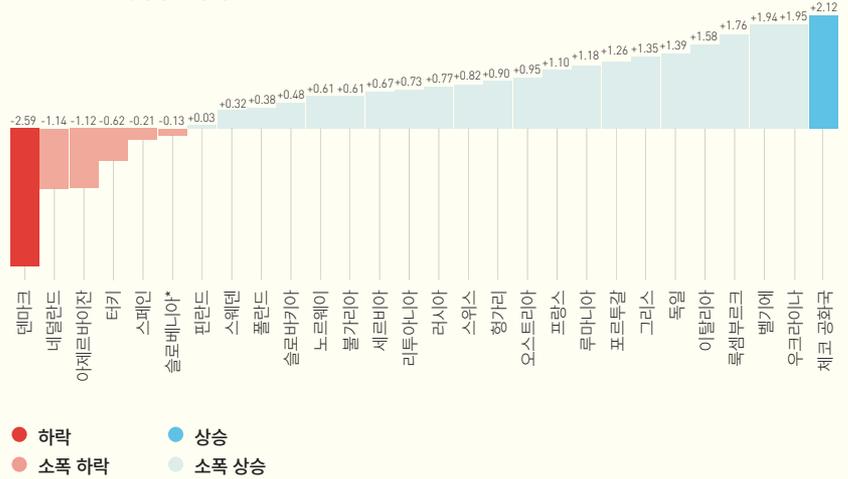
## 줄어들지 않는 큰 격차

유럽 프로젝트의 핵심이 중앙집중화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여전히 다양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한 측면이 바로 영어 능력의 큰 격차입니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영어능력지수 차이는 15점이 넘습니다. 유럽 경계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가장 큼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불평등 풍조와 이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로 인해 포퓰리즘의 위협과 반유럽 정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 EF EPI 추세

올해 유럽의 영어 점수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으나, 체코 공화국이 가장 큰 향상을 보였고,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상승하였습니다. 덴마크는 유일하게 급격히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8개 유럽 국가가 올해 한 단계 더 높은 영어능력지수 등급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입니다.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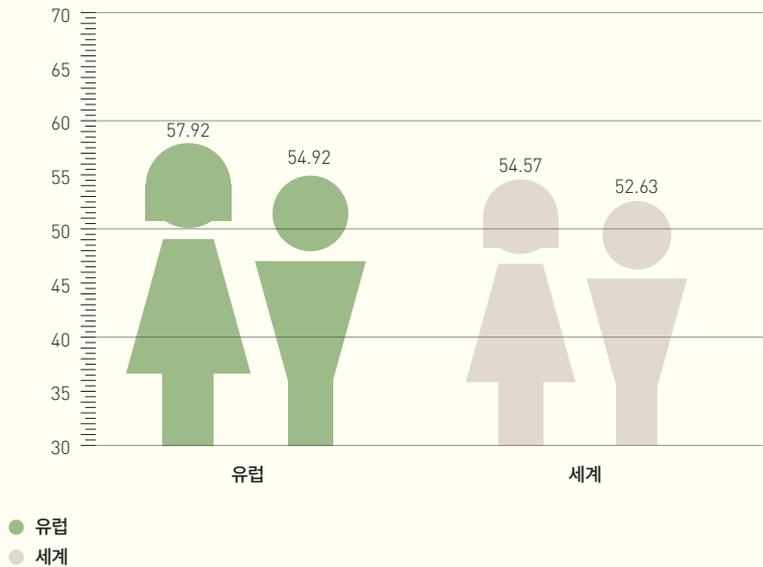


\*이 국가는 EF EPI 제7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점수는 이전 EF EPI 보고서들을 참고하였습니다.

## 성별 간 격차

유럽의 남녀 평균 점수는 모두 글로벌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여성의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이상 상승하였으나 남성의 점수는 소폭 하락한 탓에 유럽 내의 성별 간 격차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만큼이나 큰 격차입니다.

EF EPI 점수



## 세대 간 격차

유럽의 성인은 모든 연령대가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25세 이상 성인의 영어 능력이 눈에 띄는 상승을 하였는데 특히 40세 이상 성인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18-20세 젊은 성인만 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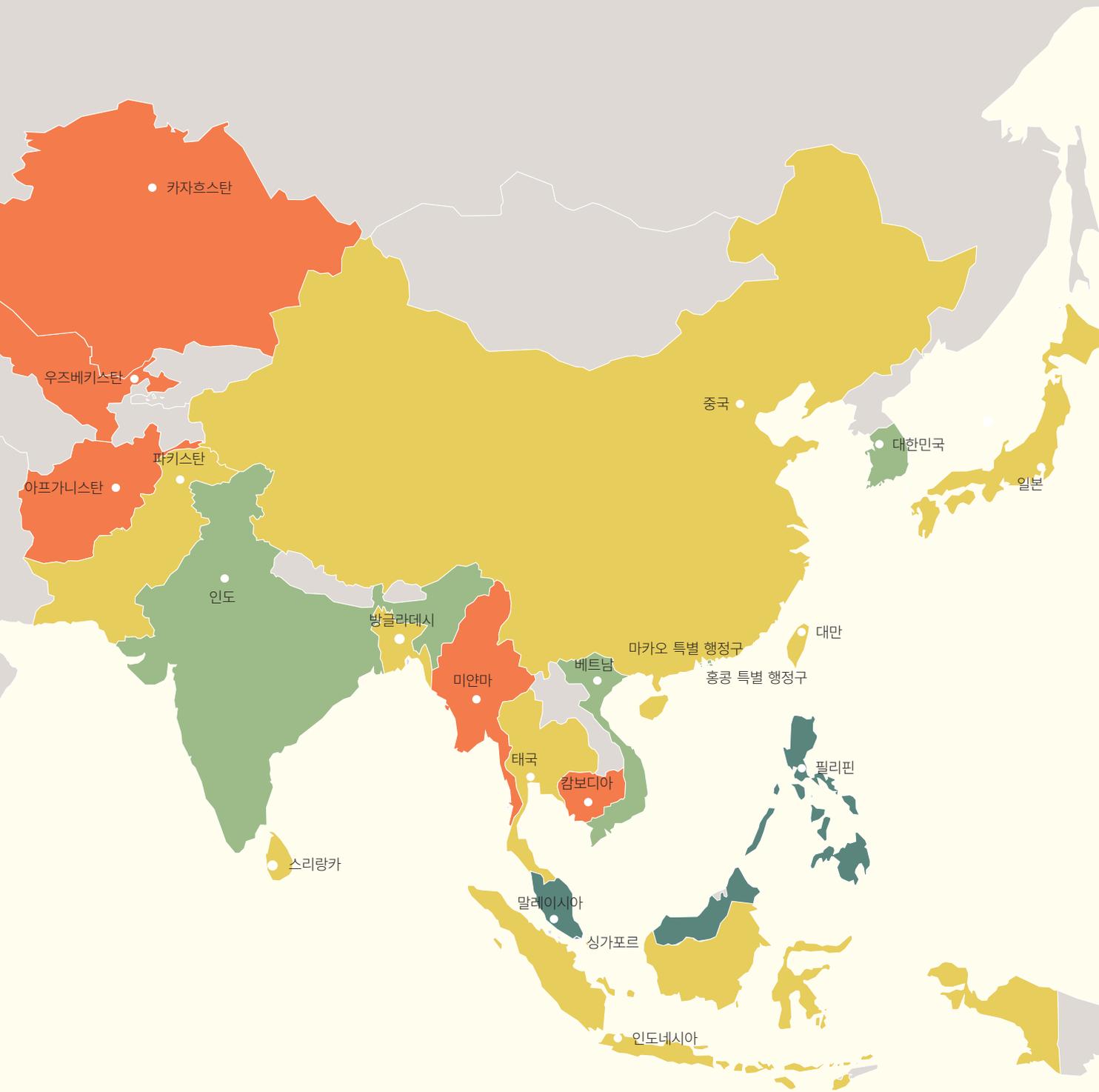


# 아시아

## EF EPI 순위

03	싱가포르	68.63	44	마카오 특별 행정구	52.57	63	방글라데시	48.72
14	필리핀	61.84	47	중국	51.94	64	태국	48.54
22	말레이시아	59.32	48	대만,	51.88	80	카자흐스탄	45.19
28	인도	57.13	49	일본	51.80	82	미얀마	44.23
30	홍콩 특별 행정구	56.38	50	파키스탄	51.66	84	아프가니스탄	43.64
31	대한민국	56.27	51	인도네시아	51.58	85	캄보디아	42.86
41	베트남	53.12	58	스리랑카	49.39	86	우즈베키스탄	42.53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미봉책은 없다.

아시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영어 능력의 격차가 큼니다. 올해 지수에서 3개국은 상위 25% 안에, 4개국은 하위 10%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시아 성인의 평균 영어능력지수는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으나, 2년 연속 지수 안에 포함되었던 국가 및 지역의 절반이 1점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인구가 많은 대륙은 결과가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국제 무역과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높은 영어 능력을 갖춘 아시아 국가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EF EPI 상위 10위 안에 꾸준히 들고 있는 싱가포르의 1960년 이후 GDP 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해외 오프쇼어 서비스로 유명한 나라는 인도이지만 인도 인구의 10%가 채 되지 않는 필리핀이 오히려 콜 센터의 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여전히 암기 중심의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제조업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영어 소통 기술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The Economist는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중국의 기술 산업이 향후 15년 안에 미국과 동등하게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발표된 중국 과학 논문 중 국제 공동 저자가 있는 논문은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70%가 자녀가 학교에서 영어를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영어를 공부하지 않거나 공교육의 영어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른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영어 사교육 시장은 연간 2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부터 일본의 영어능력지수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 배타적인 국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닛케이(Nikkei) 225에 속하는 기업 중 15% 가량이 최소 1명씩은 외국인 임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17년에 최초로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해외의 젊은 인력을 유입함으로써 많은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공식 과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나 교사 재교육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영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면적인 개혁

많은 국가에서, 영어 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시스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얀마에서는 GDP의 2%만 교육에 지출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교사의

3분의 1은 정식 교사가 아닙니다. 교육 격차가 심각한 파키스탄은 성과가 부족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에 투자하여 놀라울 만큼 이례적인 속도로 교육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펀자브(Punjab) 지역에 4,300개 이상의 학교를 인수하였고, 연말 전에 이 지역에서 1만 개 이상의 학교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파키스탄 교육 시스템은 정부 투자보다는 민간 투자 규모가 더 큼니다. 이렇게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로 교육적 성과가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심각하게 성과가 부족한 시스템에서는 공공-민간 간 협업을 확대하는 방법이 시스템 차원의 개혁보다 훨씬 효과가 빠른 솔루션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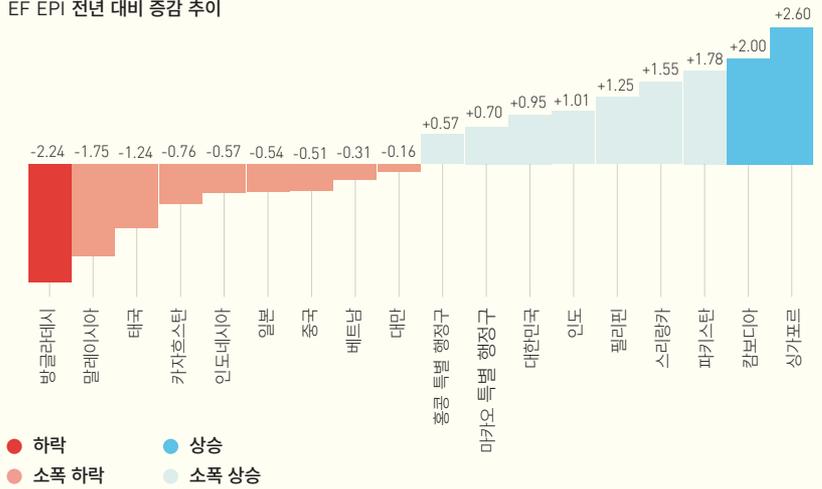
## 그늘에 가려진 근로자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계약직과 임시직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근로자 절반 이상이 임시 근로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는 근로자의 90%가 계약도 없이 고용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서는 성인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영어 능력의 증진은 불가능합니다.

## EF EPI 추세

아시아의 18개 국가 및 지역 중 9개 국가는 상승하였고 나머지 9개국은 하락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캄보디아는 올해 점수가 상당히 상승한 반면, 방글라데시는 현저히 하락했습니다. 스리랑카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 만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이동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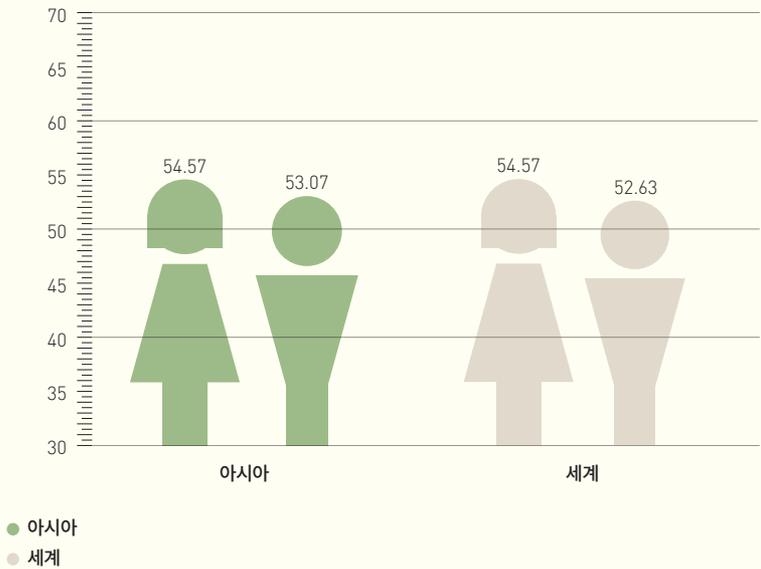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 간 격차

아시아의 성별 점수는 글로벌 평균과 같습니다. 아시아 여성들은 영어 능력이 다소 향상된 반면 남성은 다소 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성별 간 격차가 지난해 0.5점이던 것이 올해 1.5점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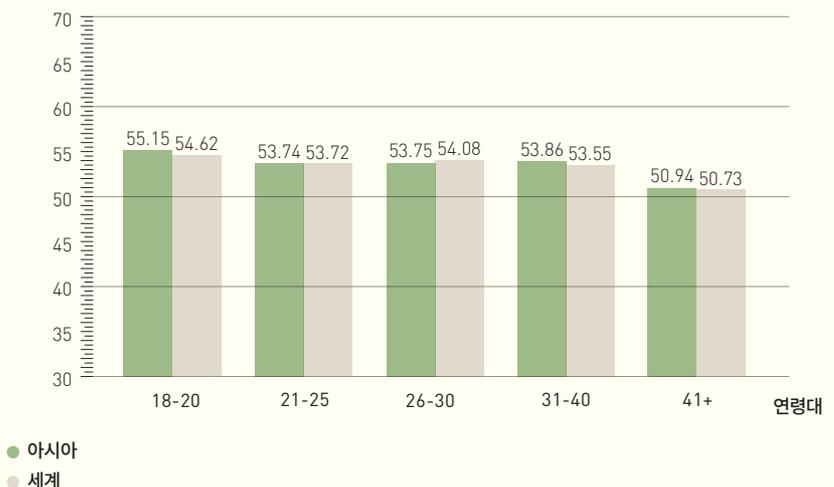
EF EPI 점수



## 세대 간 격차

올해 아시아에서는 영어능력지수의 연령별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령별 격차는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이전에 연령대별 점수가 유사하게 나타났던 아시아에서는 새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8~20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시아 연령대에서 영어능력지수 점수가 하락하였고 40세 이상 성인의 점수가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EF EPI 점수



# 라틴 아메리카

## EF EPI 순위

27	아르헨티나	57.58	59	페루	49.32
36	코스타리카	55.01	60	콜롬비아	48.90
37	도미니카 공화국	54.97	61	볼리비아	48.87
40	우루과이	53.41	65	에콰도르	48.52
46	칠레	52.01	69	온두라스	47.80
53	브라질	50.93	70	엘살바도르	47.42
55	과테말라	50.63	72	니카라과	47.26
56	파나마	49.98	75	베네수엘라	46.61
57	멕시코	49.76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발전 없는 성장

라틴 아메리카는 2017년 이래로 전 세계에서 성인의 평균 영어 능력이 하락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볼리비아와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영어능력 지수에 추가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점수가 지역 평균 이하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점수 하락에 가장 기여한 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멕시코와 브라질의 영어능력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라틴 아메리카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불평등과 불완전한 민주주의, 심각한 폭력 문제로 인해 힘겨운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숙련된 인재 개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붕괴된 시스템

일부 시골 지역의 아동들이 여전히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성과가 초라하다는 점입니다. UNESCO 시험 결과를 보면, 이 지역 3학년 학생의 50%가 기본적인 수학 과정보도 완수하지 못하고 30%가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PISA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들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학습 역량 부족으로 미루어 보아 교육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영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과부하된 학교, 적은 교사 월급, 미흡한 교사 교육체계 등 모든 것이 원인 요소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코스타리카의 교육 상황은 매우 다변적인 경제 상황과 높은 대학 진학률에 힘입어 베네수엘라나 니카라과와는 상황이 매우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의 영어 능력 수준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라틴 아메리카의 영어능력지수는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와 가장 높은 국가 간 차이가 12점이 안 될 정도로 그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미미합니다. 이 지역의 국가 대부분은 공유 언어가 있음에도 서로 간의 무역보다는 미국과 EU,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시간이 필요한 개혁

코스타리카는 작년부터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영어 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교사 교육과 초기 자격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혁한 결과, 현재 코스타리카 교사의 95%가 제3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건전하게 경쟁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2015년에 실시한 교사 평가를 보면 영어 교사의 40%가 가르쳐야 하는 커리큘럼의 콘텐츠를 완전히 마스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페루 역시 지난 5년 동안 영어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불평등 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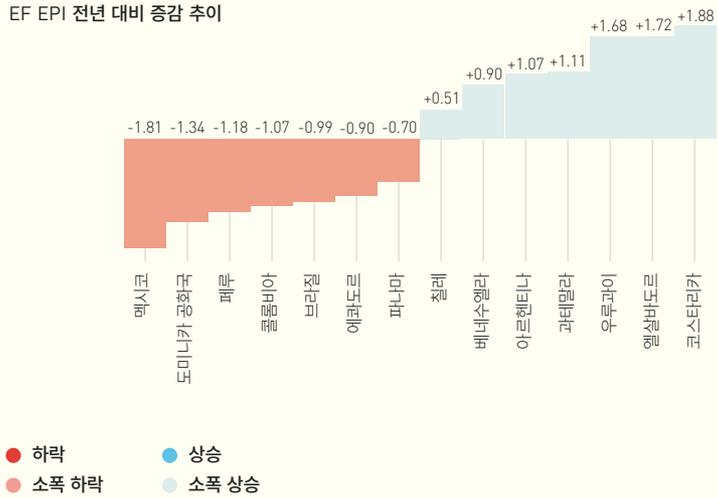
라틴 아메리카는 기술 위기 상태에 있으며, 직업 교육 체계가 취약합니다. 이 지역의 근로자는 대략 10%만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은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직업 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 형태의 비즈니스가 지배적인 비공식 부문의 고용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페루는 2013년 현재 근로자의 70%가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상태였으며,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전 지역의 모든 근로자의 절반이 비공식적 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 경력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이나 기회를 접할 수 없으면 생산성 및 영어 능력을 개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발전 가능성은 줄어들고 기존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불평등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소득 및 임금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은행 데이터(2016)에 따르면, 전 세계의 20대 불평등 국가 중 8개국에 라틴 아메리카에 속합니다. 불평등은 다면적인 문제이지만 영어 교육 강화를 비롯한 강력한 교육 시스템이 부분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사회적 이동성을 육성할 수 있는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EF EPI 추세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점수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영어능력지수가 보통 등급으로 하락했던 전년 대비 영어 능력이 다시 향상했습니다. 우루과이는 다소 향상되면서 미흡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도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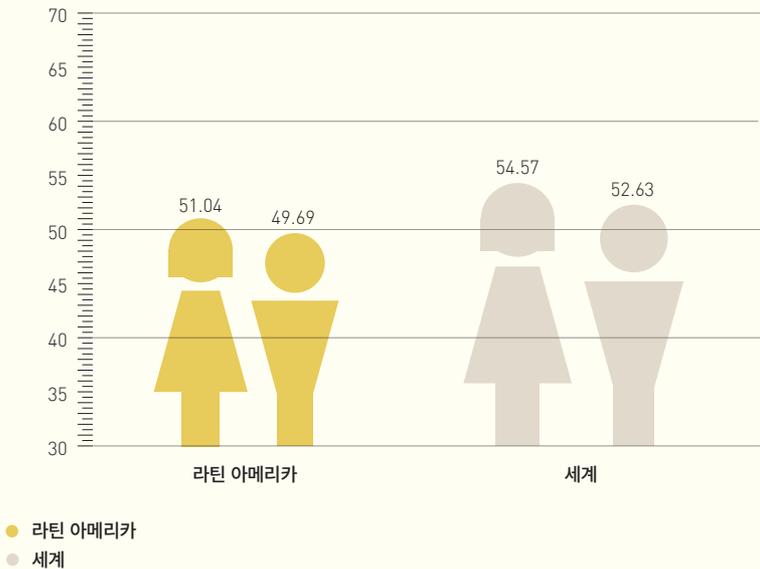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 간 격차

라틴 아메리카의 남성 및 여성은 모두 글로벌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라틴 아메리카가 유일하게 성별 간 격차가 없는 나라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남성들이 하락한 반면, 여성들은 소폭 상승하면서 아시아의 성별 격차만큼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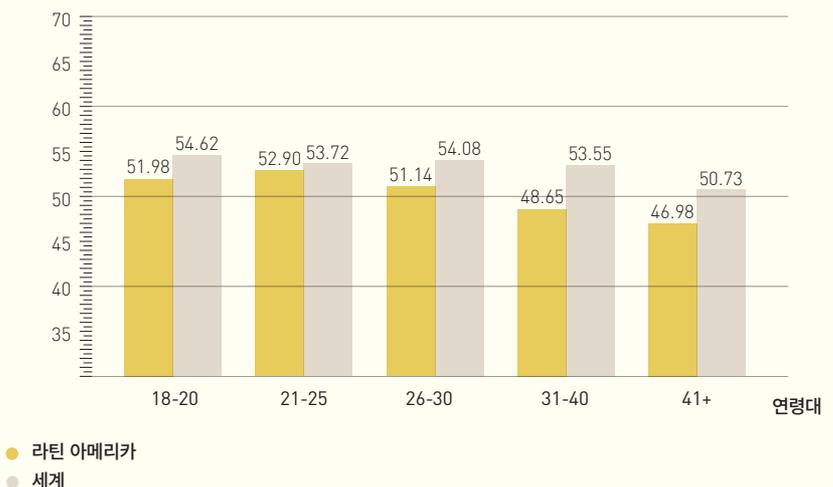
EF EPI 점수



## 세대 간 격차

라틴 아메리카는 전 연령대가 글로벌 평균을 하회 하였는데, 특히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세계 다른 지역의 동 연령대 대비 능력 부족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영어 능력을 보인 연령대가 올해 들어 18~20세에서 21~25세로 바뀌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교육 수준이 개선 되었음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가장 젊은 층의 영어능력지수가 다소 하락한 점은 신경을 써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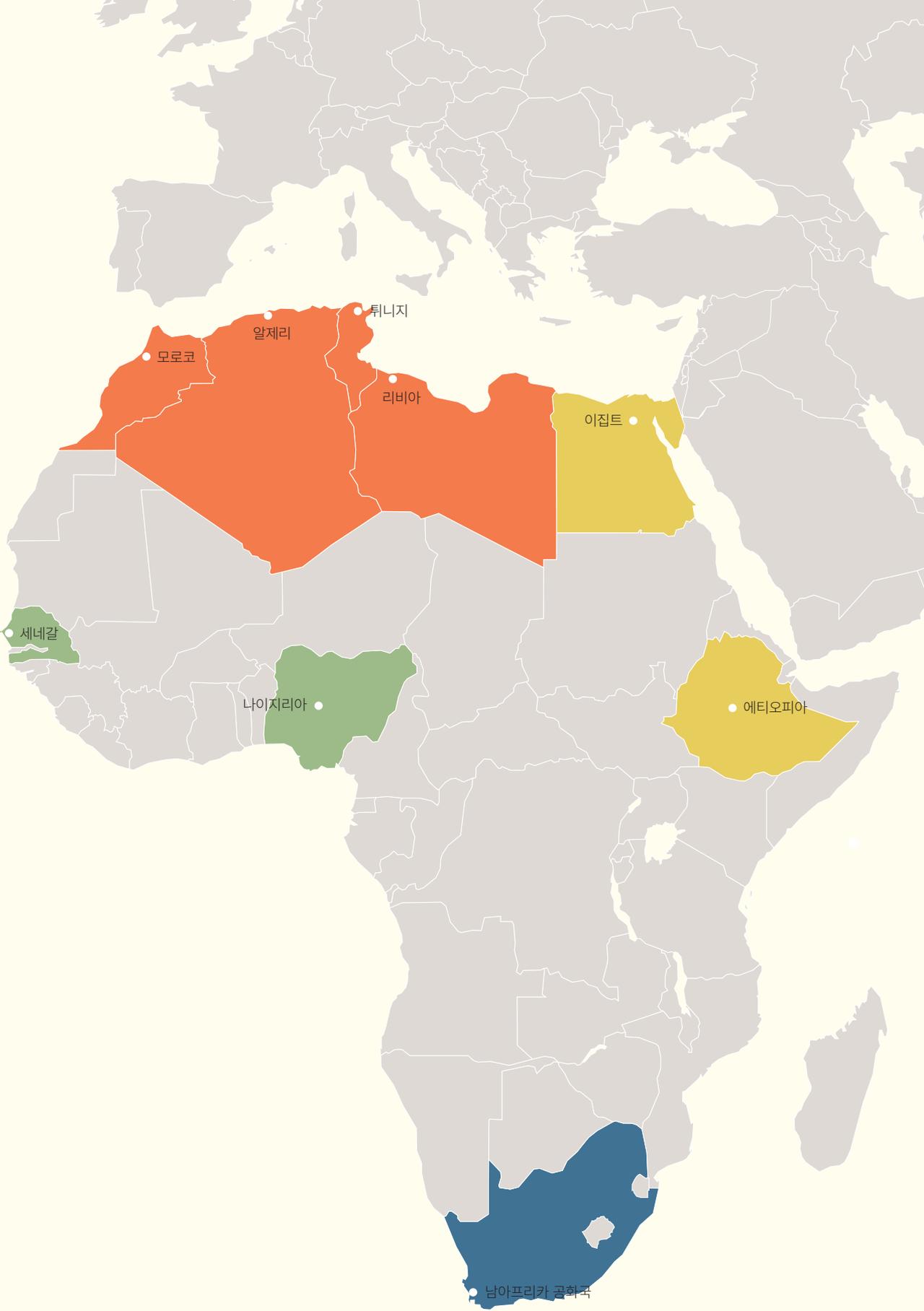


# 아프리카

## EF EPI 순위

06	남아프리카 공화국	66.52	67	모로코	48.10
29	나이지리아	56.72	68	튀니지	47.85
39	세네갈	53.50	81	알제리	44.50
54	에티오피아	50.79	88	리비아	39.64
62	이집트	48.76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잠재성의 발견

2016년과 2017년, 아프리카의 영어능력지수는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데이터 부족으로 올해 지수에서 앙골라와 카메룬은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이 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와 나이지리아의 점수가 상당히 상승하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평균 성인 영어능력지수 점수는 아시아의 점수와 비슷합니다. 다만, 아프리카 국가 중 9개국만 포함 되어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전체 점수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실질적인 접근법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영어능력지수를 기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식 언어가 영어를 비롯하여 11개나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가 형성된 국가에서 다국어주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만이 영어를 원어로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폭넓게 영어가 사용되고 있고, 특히 도시 지역에서 공용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식민지 주민을 강력하게 이어 주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어가 이들을 엮어주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영어는 정부와 고등 교육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세네갈은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대상으로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모두 성인 영어능력지수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도시 지역의 엘리트층은 보통 영어를 원어로 구사하지만, 영어가 국가 공식 언어임에도 외곽 지역에서는 영어를 훨씬 덜 사용합니다. 세네갈은 프랑스가 유일한 공식 언어이지만 영어 또한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앙골라에서 모두 영어 클럽과 회화 모임, 모바일 교육 플랫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영어 학습 접근 방식은 지극히 실용적이어서 문법을 익히는 대신 실용 영어 회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이 확실히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다른 언어와 함께 영어도

북아프리카 지역은 낮은 영어능력지수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과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성인은 중동의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에서는 다국어 사용이 일반적이고 특히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는 일상생활과 교육 시스템, 공적 부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아랍어나 베르베르어, 프랑스어, 현대 표준 아랍어 등 지역 사투리를 함께 사용하는 등 언어적 배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영어는 이러한 복잡한 언어적 배경에 상대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언어이지만, 특히

중립성과 비즈니스 잠재성 측면에서 계속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 침체되고 있는 이집트에서 올해 영어능력지수가 향상되었다는 소식은 상당히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개방성과 국제 무역의 증가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상당한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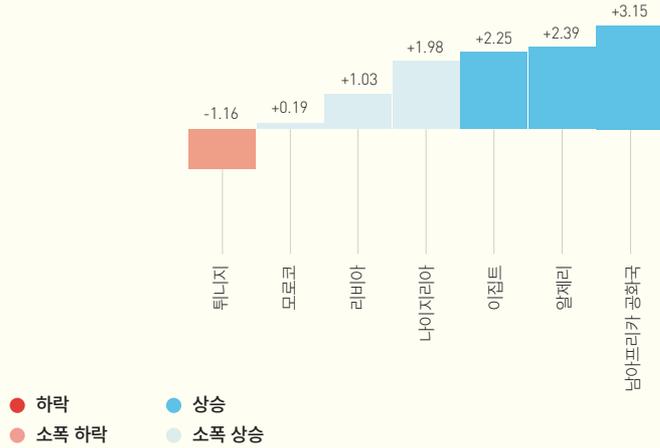
## 다양한 장애 요소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영어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다양한 장애 요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튀니지와 모로코 등 일부 국가는 공공 부문이 과잉되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시장 구조 안에서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의 제공할 수 없고 가장 촉망받는 학생들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는 교육 시스템이 취약하고 학교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리비아와 다른 국가들은 무력 분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아프리카 성인들이 당사의 영어 시험에 더 많이 응시하여 이 광활하고 변화무쌍한 대륙의 성인 영어 능력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EF EPI 추세

올해 EF EPI에서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영어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 보다 많은 수의 국가들이 상당한 점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집트는 더 높은 등급으로 진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영어능력지수가 상승하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지수가 다소 하락한 튀니지는 미흡 등급에서 부족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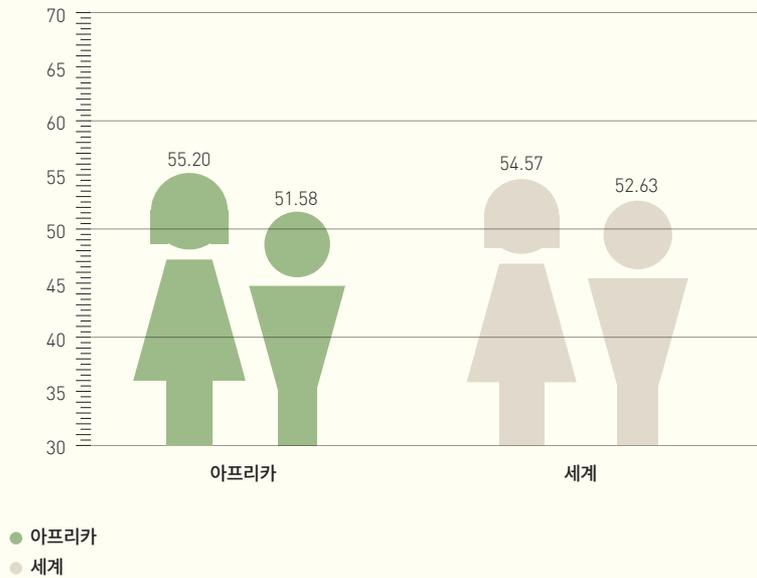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 간 격차

아프리카의 성별 간 격차는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항상 크게 나타났었는데 올해는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여성들의 영어능력지수가 전 세계의 어떤 성별군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런 변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현재 이들의 영어 능력은 유럽의 남성보다 앞서며 유일하게 약간 뒤처지는 상대는 유럽 여성들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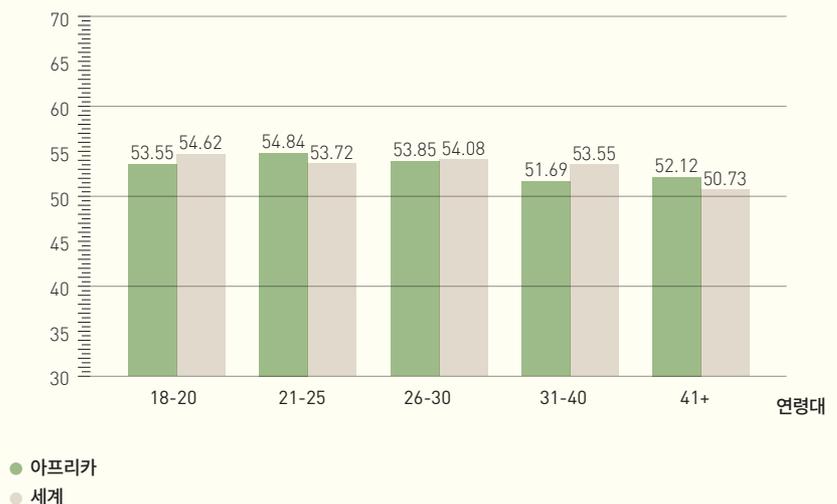
EF EPI 점수



## 세대 간 격차

올해 아프리카의 2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의 영어 능력지수가 향상되었는데 특히 26~30세 성인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가 여전히 글로벌 평균을 약간 밑도는 가운데 40세 이상 성인은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집단이 18~20세 성인에서 21~25세 성인으로 바뀌었습니다.

EF EPI 점수



# 중동

## EF EPI 순위

33	레바논	55.79	78	쿠웨이트	45.64
66	이란	48.29	79	오만	45.56
71	아랍에미리트	47.27	83	사우디아라비아	43.65
74	요르단	47.10	87	이라크	40.82
76	시리아	46.37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 변화를 위한 고군분투

3개 대륙의 접점에 있는 중동의 지리적 조건은 이 지역의 무역과 지정학, 교육 시스템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접점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영어능력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구의 평균 연령이 25세밖에 안 되는 가장 젊은 지역 중 하나로 엄청난 변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 적극적인 개방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국가들은 모두 석유 기반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다른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직업 및 교육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부 주도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이 영어 능력 개발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이들 계획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은 해외 투자 및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의 다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비전 2021은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GCC 국가 중 영어능력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구의 대다수가 외국 태생으로 영어 등의 공용어를 즉시 일상 언어로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최대 경제국으로, 2018 타임즈 선정 세계 최고 명문 대학 순위(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중동 지역의 최고 명문 대학으로 선

정된 킹 압둘라지즈 대학(King Abdulaziz University)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지리적으로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어 영어 교육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젊은 청년층은 글로벌화된 새로운 시장의 니즈에 맞게 영어를 교육받아야 할 것이며, 그 안에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환을 위해서는 영어 교육과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레바논은 올해 처음으로 본 지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레바논의 영어능력지수는 지역 평균을 웃돌아 이 지역의 전체 점수 상승에 소폭 일조하였습니다. 레바논 대학과 사립 학교 대다수가 비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국어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인근의 요르단은 대학 대다수가 강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영어능력지수가 지역 평균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공립 학교의 영어 지도 수준과 대학 수준에서 필요한 영어의 수준 간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보이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아랍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이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없어 이러한 능력차를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난민 위기

시리아와 이라크의 분쟁 결과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도시에서는 교육이 완전히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공교육 회복이 기대되고는 있지만 수백만 난민이 폭력과 생활고로 고생하고 있어 영어 교육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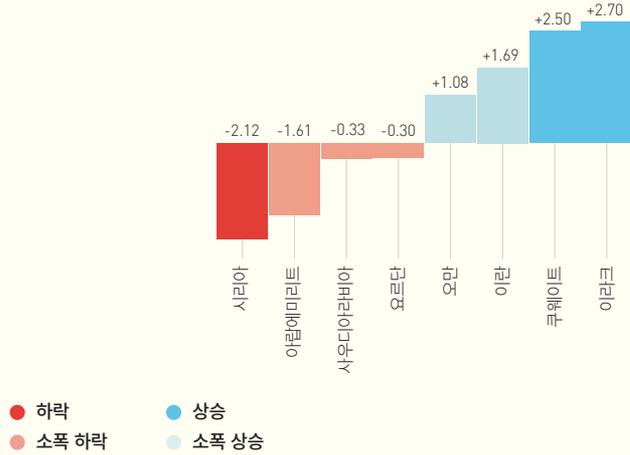
### 불확실한 미래

중동 지역 국가들은 청년층이 글로벌 인재에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길 원하지만 취약한 경제 구조와 계속되는 분쟁, 과도한 공공부문 중심의 고용 형태 등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취약한 영어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적 긴장 상태와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 EF EPI 추세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중동 또한 영어 점수가 향상된 국가와 향상되지 않은 국가로 나누어집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올해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더 높은 등급으로 진입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다소 점수가 하락하여 미흡 등급에서 부족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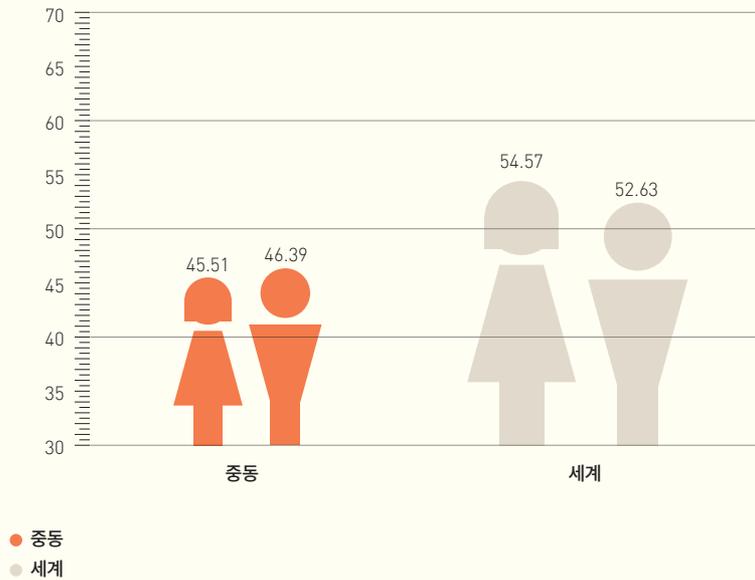
EF EPI 전년 대비 증감 추이



## 성별 간 격차

중동 지역은 유일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영어능력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성별 간 격차가 소폭 관찰되었고, 이후 더 벌어졌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격차가 적은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의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글로벌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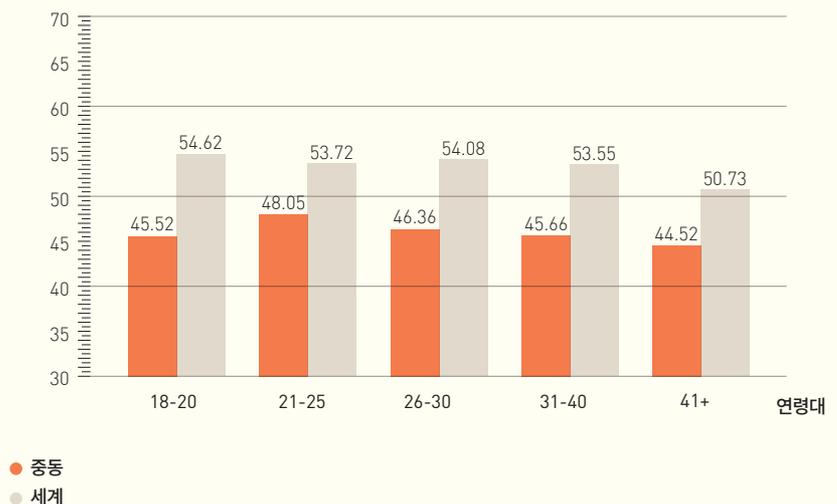
EF EPI 점수



## 세대 간 격차

올해 중동 지역은 가장 젊은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21~25세 성인의 영어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추세와 동일합니다. 모든 연령대가 글로벌 평균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뒤쳐지는 집단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은 18~20세로 나타났습니다.

EF EPI 점수



# 결론

영어를 배우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개인적 탐색과 전문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생기며, 전 세계의 공유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수백만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영어 교육과 여름 해외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의 전문직 및 직장인들이 자체적으로 영어 교육에 투자하고, 정부 또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영어는 독특하게도 공교육 범위 밖에 엄청난 교육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웹 프로그래밍이나 회계, 산술, 읽기 쓰기 능력 등 다른 기술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 기술은 공교육 범위 안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거나, 특정 직업에 한해서만 필요한 기술입니다. 반면 영어는 수많은 전문 직종에서 수요가 높고 아직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충분히 영어를 숙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과 도시, 지역, 국가들이 영어 능력 개발을 통한 혜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을 갖추면 국제적인 협력과 투자, 이동이 가능해 집니다. 영어에 능숙한 커뮤니티에 소속된다면 엔지니어들은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고, 인사

담당자들은 글로벌 인재풀에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 전문가들은 더욱 원활하고 종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어 능숙도는 수입, 평등, 생산성 등 주요 개발 지표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영어를 능숙한 문화를 한 번에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지만 가장 탄탄한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들을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효과가 입증된 전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적으로 영어를 기본 핵심 역량으로 인식
-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영어를 교육
- 학생의 영어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테스트 시행
-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더빙하지 않아 인구 전반에 걸쳐 폭넓게 어려서부터 영어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도록 함

-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에서 단기 및 장기 해외 교육 기회를 제공
- 대학 강의를 영어를 사용하여 가르치도록 허용
- 모든 대학 전공과 직업 학교에서 영어 능력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지정
- 모든 신입 교사를 위한 교육 과정에 영어를 포함
-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와 교육법에 대해 교사들을 재교육
- 영어 교사들이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 일자리 센터 및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양질의 영어 강의를 제공
-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유명인들을 좋은 선례로 사용하여 영어 교육을 지원

능숙한 영어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영어를 기업의 공식 언어로 지정
- 국제주의와 유동성 문화를 강화
- 주로 제3의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직원의 영어 교육에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자금을 투자
- 직원의 직무에 따라 일반적인 영어 교육이 아닌 해당 직무에 특화된 영어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교육
- 전직원을 테스트하여 영어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선별하고 전략적으로 이들을 우선 개선하는 데에 집중
- 다양한 직무에 따라 영어 능력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시험을 시행
- 영어 능숙자를 채용 시 우대
-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인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팀을 구성
- 모든 회사 자료를 영어로 작성하도록 요구
- 기업 임원들이 나서서 영어 학습자이자 영어 사용자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며 직원들을 독려

정확하게 유효한 전략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을 때의 혜택은 분명합니다. 강력한 영어 능력을 갖춘 커뮤니티는 강력한 경쟁력이 있으며 개방적이고 세계의 기회와 지식, 인재를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늦춰진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간편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영어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

EF 영어능력지수(EF English Proficiency Index)는 언론인, 교육자, 관료, 기업인들에게 공신력 있는 데이터 자료로서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EF는 영어 교육과 관련된 세계적인 논의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EF EPI 제8판은 2017년 EF 표준 영어 시험(EF SET)을 치른 전 세계 130만 명 이상 응시자들의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F 표준 영어 시험**

EF SET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영어 읽기와 듣기 시험입니다. 또한, 응시자의 언어 능력을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에 따라 6가지 레벨로 분류하기 위해 설계된 시험으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EF SET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응시 가능합니다. EF SET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efset.org/research](http://www.efset.org/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F EPI 2018 점수는 TOEFL iBT 2017 점수 ( $r=0.82$ ) 및 IELTS Academic Test 2016 점수 ( $r=0.71$ )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시험이 설계 방식이나 응시자 프로파일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영어 능력의 동향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시자**

비록 응시자들의 대다수가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성인층에 치중되어 있지만, EF EPI는 균형 있는 성비와 다양한 연령대 성인들의 영어능력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여성 응시자가 전체 표본의 60%를 차지
- 성인 응시자의 평균 연령은 26세
- 전체 응시자의 86%가 35세 미만, 99%는 60세 미만
-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령은 동일

영어능력지수에 포함되려면, 한 도시, 지역 및 국가 내의 응시자 수가 최소 400명이여야 합니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응시자 수가 400명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쿠바, 카타르, 몽골, 앙골라, 카메룬, 라오스는 이전 EF EPI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판에서는 시험 응시자가 부족하여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표본 편차**

본 지수의 시험 응시자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영어 실력이 궁금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보다 영어 실력이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가 순수하게 개인적 용도이므로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일부러 성적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EF SET은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시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젊은 성인입니다. 어디에서나 EF SET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시험 응시자의 30%가 모바일 기기에서 시험을 완료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사람은 자동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형식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표본 편차로 인해 빈곤하고 교육을 덜 받은 소외 계층이 제외됨으로써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료 온라인 시험은 광범위한 지표에 관한 매우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전 세계 영어 능력 수준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점수 산정**

EF EPI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EF SET의 100점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지역 평균은 인구에 따라 가중치를 계산하였습니다. 본 시험 점수에 따라 국가와 지역, 도시별 영어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등급을 통해 영어 실력이 비슷한 국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대륙 내의

국가 및 대륙 간의 등급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등급은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 및 EF 프로그램 레벨과 일치합니다.

- 우수 등급은 CEFR의 B2 레벨에 해당합니다.
- 양호, 보통, 미흡 등급은 CEFR B1 레벨에 해당하며, EF 강자 레벨과도 동일합니다.
- 부족 등급은 CEFR의 A2 레벨에 해당합니다.

#### 기타 자료 출처

EF EPI 는 유로모니터나 갤럽 같은 여론 조사 기관이나, OECD의 역량 조사인 PISA나 PIAAC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이런 연구에서는 조사 표본을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수입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그와 같은 표본은 보통 국가당 몇천 명 정도로 작지만 복잡한 표본 선택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이제껏 영어 능력에 대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다른 영어 능력 자료는 국내 교육 체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표준화된 국내 평가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이나 대학 지원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교육자와 정부 관계자는 자료를 이용해 교육 체계 개편

결과를 확인하고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내 평가는 서로 간에 비교가 불가능하며 성인을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전 세계의 한 영역에 국한된 고등학생의 영어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국가 간 성적을 비교하거나 성인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F EPI는 국내 평가 결과 및 언어 관련 여론 조사 혹은 기타 자료와 경쟁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자료는 서로를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몇몇 자료는 세밀하지만 특정 연령대, 국가, 지역, 응시자에 제한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EF EPI는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통해 전 세계 생산 가능 연령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한 폭넓은 자료입니다. EF EPI와 견줄만한 크기와 범위를 가진 자료는 없으며, 자료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 학자, 분석가들과 함께 영어 교육 논의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련 EF EPI 보고서

EF EPI 보고서는 총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인 영어 능력을 다루고 매년 발행하는 본 EF EPI 보고서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영어 능력을 다루고 격년으로 발행하는 학생용 보고서(EF EPI-s)입니다. 올해는 EF EPI

제8판을 발행했으며, EF EPI-s 제2판은 2017년에 발행되었습니다. 모든 EF EPI 보고서는 [www.ef.com/epi](http://www.ef.com/epi)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F EDUCATION FIRST에 대하여

EF Education First([www.ef.com](http://www.ef.com))는 언어와 학문, 문화 교류, 교육적 여행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교육 기업입니다. 1965년에 설립된 EF의 미션은 "교육을 통해 세계를 연다"입니다.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 500개에 이르는 학교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EF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의 공식 언어 교육 파트너사입니다. EF 영어능력지수는 Signum International AG가 발표합니다.

### EF EPI 영어능력지수 등급에 관하여

EF 영어능력지수 등급을 활용하면 영어 능력이 비슷한 국가를 쉽게 파악하고 각 지역별 및 지역 내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은 해당 등급에 포함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가는 각 등급별로 상위 3개국을 표시하였으며, EF EPI 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 및 지역에서만 조사하였습니다.

EF 영어능력지수는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을 '우수'부터 '부족'까지 5 단계 등급으로 구분 하였습니다. 영어능력지수 등급을 통해 어느 국가의 영어 능력이 비슷한지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역 및 지역 내 격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에서 등급별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들이 모든 측면을 포괄하지는 않지만, 등급별 영어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능력지수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국가 및 지역별 영어 능력을 비교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등급	국가/지역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우수	스웨덴 네덜란드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에 적절한 말투와 언어 구사하기</li> <li>✓ 수준 높은 문장을 쉽게 읽기</li> <li>✓ 원어민 영어 사용자와 계약 내용 협상하기</li> </ul>
양호	폴란드 필리핀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에서 발표하기</li> <li>✓ TV 프로그램 이해하기</li> <li>✓ 신문 읽기</li> </ul>
보통	인도 나이지리아 홍콩 특별 행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기</li> <li>✓ 노래 가사 이해하기</li> <li>✓ 익숙한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이메일 작성하기</li> </ul>
미흡	조지아 칠레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권 국가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기</li> <li>✓ 직장 동료들과 얘기 나누기</li> <li>✓ 직장 동료의 짧은 이메일 이해하기</li> </ul>
부족	이란 모로코 튀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히 자기소개하기 (이름, 나이, 국적 등)</li> <li>✓ 간단한 표지판 이해하기</li> <li>✓ 외국인에게 길 안내하기</li> </ul>

---

<b>고급 영어 사용자</b>	C2	읽고 듣는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 다양한 곳에서 읽고 듣는 정보를 요약하거나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구별하여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	----	---

C1	길고 어려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함축적인 표현도 이해할 수 있다. 표현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사회적, 문학적, 전문적인 언어를 구사 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에도 적절한 언어 패턴, 접속어,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

---

<b>중급 영어 사용자</b>	B2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에 관련한 복잡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꽤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막힘 없이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명확하고 자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견해도 다양한 장단점을 열거하며 설명할 수 있다.
------------------	----	---

B1	직장, 학교, 여가 생활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주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여행 중일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경험, 사건, 꿈, 희망, 의견, 계획 등을 묘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다.
----	--

---

<b>초급 영어 사용자</b>	A2	자신과 가장 밀접한 주제(아주 기본적인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정보, 쇼핑, 지역 지리, 직업 등)에 관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해한다.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개인 신상, 현재 상황, 사건, 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	--

A1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구와 매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사는 장소, 아는 사람, 소지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준다면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다.
----	---

---

위의 내용은 유럽평의회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F EPI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A2 에서 B2 등급 내에 위치하였습니다.

# EF EPI 국가 및 지역별 점수

## 전년 대비 영어 능력 변화:

다음의 EF EPI 점수 변화는 EF EPI 제7판과 제8판 사이의 점수 변화입니다. 상승 또는 하락 폭이 2점 이상인 경우는 영어 능력의 뚜렷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EF EPI 제7판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에 수집한 자료이며 제8판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에 수집한 자료입니다.

	EF EPI 제7판	EF EPI 제8판	전년 대비 증감 추이
과테말라	49.52	50.63	1.11
그리스	57.14	58.49	1.35
나이지리아	54.74	56.72	1.98
남아프리카 공화국	63.37	66.52	3.15
네덜란드	71.45	70.31	-1.14
노르웨이	67.77	68.38	0.61
니카라과	—	47.26	new
대만, 중국	52.04	51.88	-0.16
대한민국	55.32	56.27	0.95
덴마크	69.93	67.34	-2.59
도미니카 공화국	56.31	54.97	-1.34
독일	62.35	63.74	1.39
러시아	52.19	52.96	0.77
레바논	—	55.79	new
루마니아	59.13	60.31	1.18
룩셈부르크	64.57	66.33	1.76
리비아	38.61	39.64	1.03
리투아니아	57.08	57.81	0.73
마카오 특별 행정구	51.87	52.57	0.7
말레이시아	61.07	59.32	-1.75
멕시코	51.57	49.76	-1.81
모로코	47.91	48.1	0.19
미얀마	—	44.23	new
방글라데시	50.96	48.72	-2.24
베네수엘라	45.71	46.61	0.9
베트남	53.43	53.12	-0.31
벨기에	61.58	63.52	1.94
벨라루스	—	53.53	new
볼리비아	—	48.87	new
불가리아	57.34	57.95	0.61
브라질	51.92	50.93	-0.99
사우디아라비아	43.98	43.65	-0.33
세네갈	—	53.5	new
세르비아	59.37	60.04	0.67
스리랑카	47.84	49.39	1.55
스웨덴	70.4	70.72	0.32
스위스	60.95	61.77	0.82
스페인	56.06	55.85	-0.21
슬로바키아	57.63	58.11	0.48
슬로베니아	64.97*	64.84	-0.13
시리아	48.49	46.37	-2.12
싱가포르	66.03	68.63	2.6
아랍에미리트	48.88	47.27	-1.61
아르헨티나	56.51	57.58	1.07

	EF EPI 제7판	EF EPI 제8판	전년 대비 증감 추이
아제르바이잔	46.97	45.85	-1.12
아프가니스탄	—	43.64	new
알바니아	—	51.49	new
알제리	42.11	44.5	2.39
에콰도르	49.42	48.52	-0.9
에티오피아	—	50.79	new
엘살바도르	45.7	47.42	1.72
오만	44.48	45.56	1.08
오스트리아	62.18	63.13	0.95
온두라스	—	47.8	new
요르단	47.4	47.1	-0.3
우루과이	51.73	53.41	1.68
우즈베키스탄	—	42.53	new
우크라이나	50.91	52.86	1.95
이라크	38.12	40.82	2.7
이란	46.6	48.29	1.69
이집트	46.51	48.76	2.25
이탈리아	54.19	55.77	1.58
인도	56.12	57.13	1.01
인도네시아	52.15	51.58	-0.57
일본	52.34	51.8	-0.54
조지아	—	52.28	new
중국	52.45	51.94	-0.51
체코 공화국	57.87	59.99	2.12
칠레	51.5	52.01	0.51
카자흐스탄	45.95	45.19	-0.76
캄보디아	40.86	42.86	2
코스타리카	53.13	55.01	1.88
콜롬비아	49.97	48.9	-1.07
쿠웨이트	43.14	45.64	2.5
크로아티아	—	60.16	new
태국	49.78	48.54	-1.24
터키	47.79	47.17	-0.62
튀니지	49.01	47.85	-1.16
파나마	50.68	49.98	-0.7
파키스탄	49.88	51.66	1.78
페루	50.5	49.32	-1.18
포르투갈	58.76	60.02	1.26
폴란드	62.07	62.45	0.38
프랑스	54.39	55.49	1.1
핀란드	65.83	65.86	0.03
필리핀	60.59	61.84	1.25
헝가리	58.61	59.51	0.9
홍콩 특별 행정구	55.81	56.38	0.57

\* 이 국가는 EF EPI 제7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점수는 이전 EF EPI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8). The World Factbook. Retrieved from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Council of Europe. (2018). Language Education Policy Profiles. Retrieved from [http://www.coe.int/t/dg4/linguistic/Profils1\\_EN.asp](http://www.coe.int/t/dg4/linguistic/Profils1_EN.asp)

Council of Europe. (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U.K: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The Economist. (2017). Stumped for Words: A Battle over Language is Hampering Algeria's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s://www.economist.com/news/middle-east-and-africa/21726743-arabic-berber-french-and-hybrid-three-vie-dominance-battle-over>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Retrieved from <http://www.euromonitor.com/income-and-expenditure>

European Commission. (2018). Erasmus+.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node\\_en](https://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node_en)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Facts and Figures. (2015). National Sheets on Education Budgets in Europe 2015.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uman Progress (2017). Labor productivity per hour worked. Retrieved from <https://humanprogress.org/dwworld?p=293&yf=1950&yl=201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7).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7. Retrieved from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598669.pdf](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publ/documents/publication/wcms_598669.pd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4). Trends in informal employment in Peru: 2004-2012. Retrieved from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americas/---ro-lima/documents/publication/wcms\\_245891.pdf](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americas/---ro-lima/documents/publication/wcms_245891.pdf)

Neeley, T. (2017). *The Language of Global Success How a Common Tongue Transforms Multinational Organiz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pisa/>

Statistics South Africa. (2012). Census 2011. Retrieved from [http://www.statssa.gov.za/?page\\_id=3839](http://www.statssa.gov.za/?page_id=3839)

Saudi Vision 2030. (2018). Vision 2030. Retrieved from <http://vision2030.gov.sa/en>

Technavio. (2017). ELT Market in China 2017-2021.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andmarkets.com/research/sktqck/elt\\_market\\_in](https://www.researchandmarkets.com/research/sktqck/elt_market_in)

TIMSS & PIRLS International Study Center, Lynch School of Education, Boston College,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018). TIMSS & PIRLS. Retrieved from <https://timssandpirls.bc.edu/>

UNICEF. (2018). In Yemen, children's education devastated after three years of escalating conflict. Retrieved from [https://www.unicef.org/media/media\\_102771.html](https://www.unicef.org/media/media_102771.html)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17).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Retrieved from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ir2017\\_overview\\_en.pdf](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ir2017_overview_en.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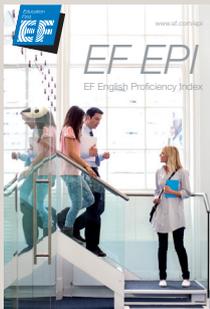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7). Human Development Report 2017: Human Development for Everyone. Retrieved from <http://report.hdr.undp.org/>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8). Why a Japanese E-commerce Giant Made its Employees Learn English. Retrieved from <http://knowledge.wharton.upenn.edu/article/do-global-firms-need-a-common-language/>

The World Bank. (2018). World Bank Open Data. Retrieved from <https://data.worldbank.org/>

World Trade Organization. (2018). Statistical Tables. Retrieved from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wts2016\\_e/wts16\\_chap9\\_e.htm](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wts2016_e/wts16_chap9_e.htm)

이전 EF EPI 리포트는 WWW.EF.COM/EPI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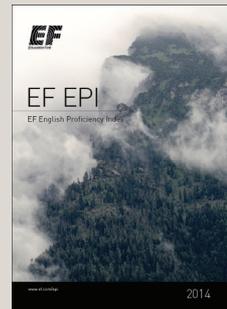
EF 영어능력지수 제1판(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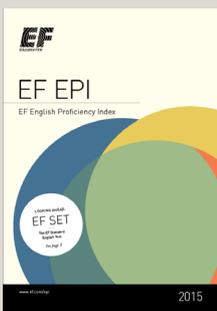
EF 영어능력지수 제2판(2012)



EF 영어능력지수 제3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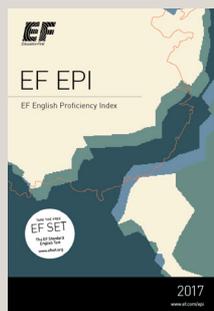
EF 영어능력지수 제4판(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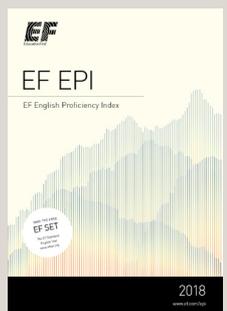
EF 영어능력지수 제5판(2015)



EF 영어능력지수 제6판(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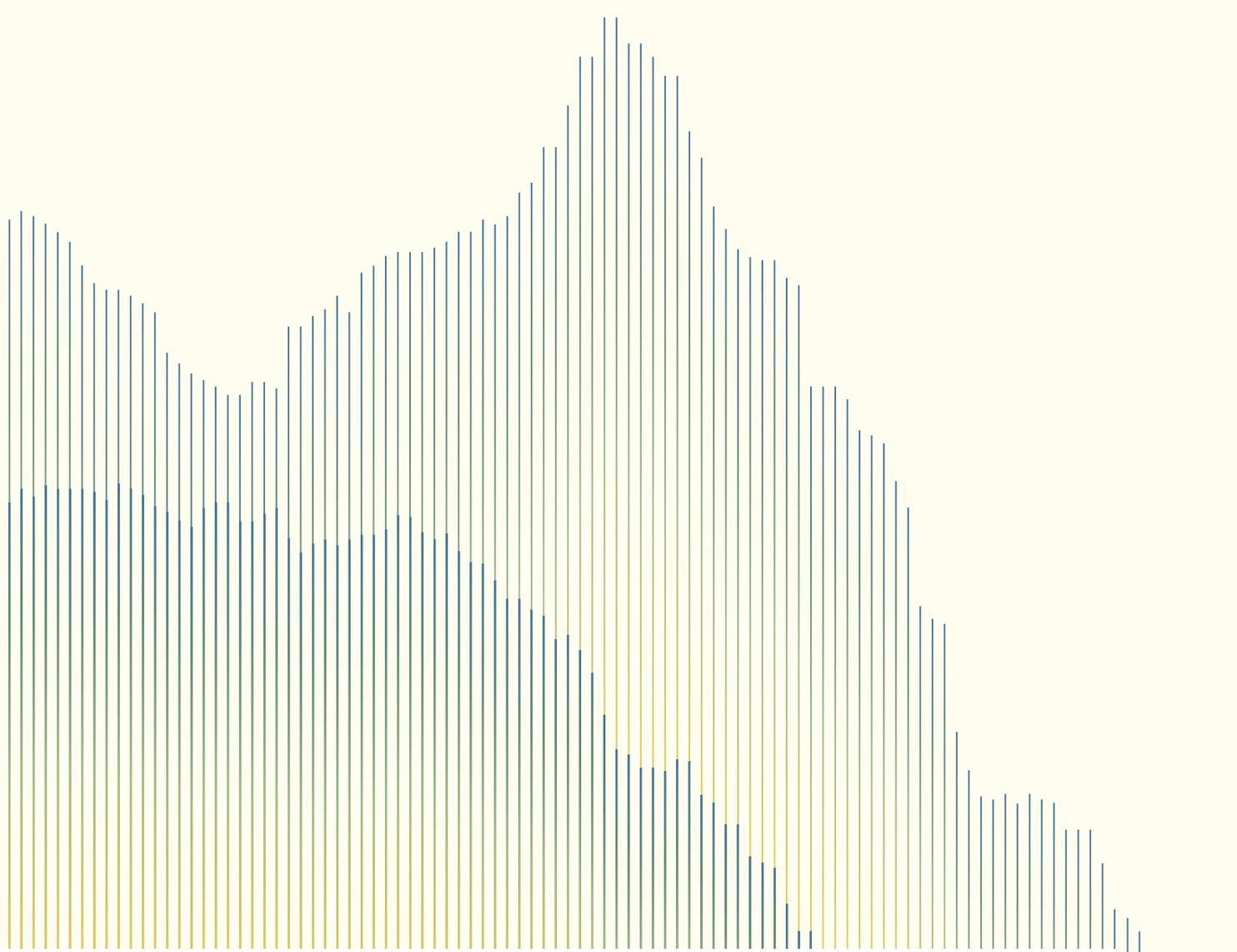


EF 영어능력지수 제7판(2017)



EF 영어능력지수 제8판(2018)





#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CONTACT US  
[www.ef.com/epi](http://www.ef.com/epi)